

5

전통문화와 다문화



5-1 먹과 채색의 어울림

- 기초** 수묵 담채로
- 심화** 채색의 아름다움

5-2 붓글씨 표현

- 기초** 궁체 알기
- 심화** 궁체와 나만의 글씨체로

5-3 다문화와 공예

- 기초**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
- 심화** 생활에 멋을 더하는 한지 공예

대단원
성경의
취지

대단원 '전통문화와 다문화'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다문화의 현상과 특성에 대한 학습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서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한 민족의 삶의 양식을 결정 짓는 전통 미술에 대한 학습은 민족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와 관심을 갖게 해 준다. 우리의 전통 미술인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 그리고 붓글씨 궁체의 표현 방법 및 이를 응용한 개성 있는 글씨체에 대해 배움으로써 전통 미술 및 현대적 계승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또한 여러 나라와 민족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 공예품의 제작 및 감상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와 다문화 이해를 위한 학습 내용을 함께 설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5-1 먹과 채색의 어울림

중단원의 개관

중단원 '먹과 채색의 어울림'은 3, 4학년에서 배웠던 수묵화 표현 방법에 채색을 가미한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의 표현 효과를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아름답고 다채로운 우리 전통 회화의 표현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즐기며, 이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단원은 수묵 담채화 및 채색화의 표현과 감상 활동을 통해 단조롭게 여겨지던 전통 회화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설정하여, 작품을 다채롭게 표현하고 감상하는 가운데 우리 전통 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초 '수묵 담채로' 단원에서는 수묵 담채화의 특징과 다양한 표현 방법을 탐색하고, 주제 표현 및 감상 활동을 통해 선과 형태의 농담 변화 및 먹과 물감의 양에 따른 표현 효과의 다양성을 체험한다.

심화 '채색의 아름다움' 단원에서는 채색화의 특징과 표현 방법을 익히고, 수묵 담채화와와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전통 회화의 다양한 표현과 그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중단원의 목표

- ★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의 의미와 특징을 안다.
- ★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익히고, 이를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 ★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의 작품을 감상하고, 적절한 미술 용어를 사용하여 그 특징을 이야기한다.

중단원의 구성

■ 체험 ▲ 표현 ● 감상

수준	소단원명	교과서 쪽수	지도서 쪽수	소단원의 제재명
기초	수묵 담채로	96~99	218~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묵 담채화의 특성 탐색하기 ▲ 수묵 담채화의 재료와 표현 방법 익히기 ▲ 수묵 담채화로 표현하기 ● 수묵 담채화 작품 감상하기
심화	채색의 아름다움	100~103	227~2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색화 탐색하기 ▲ 채색화 재료와 기법 익히기 ▲ 채색화 그리기 ● 전통 채색화 감상하기



5-1. 먹과 채색의 어울림

수묵 담채로

기초

소단원의 개관

기초 '수묵 담채로' 단원은 3, 4학년에서 익혔던 수묵화에 얽은 채색을 더한 수묵 담채화의 특징과 표현 효과에 대해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료의 특성을 살린 여러 가지 수묵 담채화의 표현 방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묵 담채화는 자칫 단조롭게 생각되기 쉬운 수묵화에 은은한 채색을 더함으로써 우리 전통 회화의 부드럽고 다채로운 느낌을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단원에서는 수묵 담채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표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우리의 전통 미술에 흥미와 관심을 두고 이를 계승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소단원의 목표

- 수묵 담채화의 특징과 표현 방법에 대해 안다.
- ▲ 수묵 담채화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 수묵 담채화 작품을 감상하며 표현 방법과 효과에 대해 이야기한다.

수업의 구성

구분	제재명	교과서 쪽수	지도서 쪽수	주요 학습 활동	차시
체험	수묵 담채화의 특성 탐색하기	96	218~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묵 담채화의 특징과 표현 방법 탐색하기 	5
표현	수묵 담채화의 재료와 표현 방법 익히기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묵 담채화의 재료와 다양한 표현 방법 살펴보기 • 물과 먹물, 물감의 양에 따른 색의 농담 표현 효과 익히기 	
	수묵 담채화로 표현하기	98	22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묵 담채화의 표현 효과를 주제 표현에 활용하기 •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수묵 담채화 그리기 	
감상	수묵 담채화 작품 감상하기	99	223~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묵 담채화의 표현 방법과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기 • 수묵 담채화의 특징과 아름다움 감상하기 	

* 수업의 구성은 학교 상황이나 여건, 학생들의 수준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평가

■ 체험 ▲ 표현 ● 감상

교육 과정 내용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상	중	하
■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 발견하기	수묵 담채화의 특징과 표현 방법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	수묵 담채화의 특징과 표현 방법을 정확히 알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수묵 담채화의 특징과 표현 방법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	수묵 담채화의 특징과 표현 방법을 알고 설명하는 데 미흡하다.
▲ 주제의 특징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주제에 적합한 표현 방법을 구사하여 수묵 담채화를 표현할 수 있다.	주제에 적합한 표현 방법을 구사하여 수묵 담채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주제에 적합한 표현 방법을 구사하여 수묵 담채화를 표현할 수 있다.	주제에 적합한 표현 방법을 구사하여 수묵 담채화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 미술 작품의 특징을 찾아 설명하기	작품을 감상하며 수묵 담채화의 표현 방법과 표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작품을 감상하며 수묵 담채화의 표현 방법과 표현 효과를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	작품을 감상하며 수묵 담채화의 표현 방법과 표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작품을 감상하며 수묵 담채화의 표현 방법과 표현 효과를 설명하는 데 미흡하다.

5-1. 먹과 채색의 어울림

수묵 담채로

수묵 담채화의 특징을 알고, 표현 효과를 살려서 표현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재료와 표현 방법으로 그린 그림을 한국화라고 합니다. 그 중에 먹으로 농담의 효과를 살린 수묵화에 얇게 채색을 더한 그림을 수묵 담채화라고 합니다. 수묵 담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수묵 담채화의 특성 탐색하기

★ 수묵 담채화의 특징과 표현 효과를 탐색해 봅시다.

- 어떤 방법으로 수묵 담채화를 그릴 수 있을까요?
- 선과 색의 표현 방법은 어떤가요?
- 두 작품에서 물고기를 그리는 방법과 표현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크린닝 방법인 어떻게 다룰까요?

▲ 장한중(조선/1768~1815) **꺾어도**(종이에 수묵 담채/25.6×29.4cm/조선 시대)

▲ 장경재(한국/1924~) **꺾어도**(종이에 수묵 담채/68.5×70cm/1970년 대)

미술 용어 알아보기 수묵화, 수묵 담채화, 먹색, 농담 → 용어 알기 120쪽

수묵 담채화의 재료와 표현 방법 익히기

★ 수묵 담채화의 재료와 용구를 사용하여 표현 방법을 익혀 봅시다.

수묵 담채화 재료와 용구

이렇게 해요

나비의 날개에 농담의 변화를 표현해요. 계의 몸통에 색이 번지도록 효과를 살려 표현해요. 나뭇가지를 다양한 선의 굵기로 표현해요. 복잡한 거북이 등갑점은 복잡한 **윤곽선**으로 먼저 그리고 색칠해 보아요. 탐스러운 과일은 향의 **윤곽선** 없이 농담을 살려 표현해 보아요.

▽ 김시환, 안운번, 이은주, 강기현, 강예원 (역세 필드 작품) 과일의 향기를 담고 요인 친구들(종이에 수묵 담채/30×41cm)

수묵 담채로 97

T: 수묵 담채화는 이전에 배웠던 수묵화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S: 수묵화는 먹물의 특성과 변화만으로 그리는 그림이고, 수묵 담채화는 거기에 얇은 채색을 한 그림이에요.

S: 수묵화는 먹선이나 먹물의 농담 변화만으로 형태를 그리지만 수묵 담채화는 먹물에 물감을 섞기도 하고 물감 색만으로 선이나 형태를 표현하기도 해요.

T: 그림 수채화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S: 먹물과 물감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이 수채화와 달라요.

S: 수채화는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지만, 수묵 담채화는 먹물이나 물감으로 밑그림을 그리거나 아예 밑그림 없이 직접 형태를 표현하기도 해요.

S: 종이도 도화지가 아닌 화선지에 그려요.

T: 수묵 담채화와 수묵화, 수채화의 다른 점을 잘 알고 있네요. 오늘은 수묵 담채화의 특성에 대해 알아 봅시다.

거나 회전시켜도 훼손되지 않는 서예용 붓 것이 좋다. 서예용 붓은 재질이 나 크기도 다르고 수묵 담채화 고유의 특성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먹과 물감: 수묵 담채화는 서예나 수묵화와 달리 많은 양의 먹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감도 비교적 얇게 부분적으로 칠하므로 조금씩만 덜어 사용한다.

● 팔레트: 수묵화용 팔레트를 사용한다. 팔레트나 접시는 먹물이나 물감의 양을 조절하고 조색하는 과정에서 붓을 훑어 낼 때 움직이지 않아야 하므로, 종이나 스티로폼 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접시는 적합하지 않다.



수묵화용 팔레트와 접시

2. 전개하기

1 교과서 96쪽의 '꺾어도'와 '꺾어도' 탐색하기

T: 이 작품들은 무엇을 그린 것인가요?

S: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T: 두 작품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볼까요?

S: 둘 다 물고기를 주제로 그렸는데, 하나는 물고기의 형태를 먼저 선으로 그린 후 채색하였고, 다른 하나는 윤곽선 없이 물고기의 형태를 직접 표현했어요.

T: 두 작품을 보고 각각 어떤 느낌이 드나요?

S: '꺾어도'는 물고기를 선명하게 그리고 물의 색을 얇게 칠해 맑고 생생한 느낌이 들고, '꺾어도'는 형태는 분명하지 않지만, 물속에서 금붕어들이 무리 지어 부드럽게 헤엄치는 느낌이 잘 나타나 있어요.

T: 이렇게 수묵 담채화는 먹선이나 먹물의 농담 변화, 연한 채색의 효과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다양한 표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림이에요.

2 재료와 용구에 대해 알아보기

① 준비해 온 수묵 담채화의 재료와 용구를 보며 이야기 한다.

- 재료와 용구: 수묵 담채화용 붓, 벼루, 먹, 먹물, 물감, 화선지, 종이 받침, 물통, 서진, 수묵화용 팔레트 (또는 흰색 접시), 재활용 화선지나 신문지
- 붓: 수묵화용 붓은 서예용 붓보다 조금 작으며 종류가 다양하다. 붓털에 탄력이 있으며 갈라지지 않고, 꼬

3 재료와 용구의 사용 방법 알아보기

① 붓으로 색을 만들 때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 본다.

- 먼저 붓을 물통에 담가 붓털을 충분히 적신다. 물통 가장자리에 붓털을 훑어 물의 양을 조절한다.
- 붓끝 부분에 진한 먹물이나 물감을 문힌다.
- 먹물이나 물감을 문힌 붓을 팔레트(접시)의 넓은 칸에 눕혀 문질러 섞으면서 원하는 먹색이나 색을 만든다.

② 붓의 각도에 따른 다양한 표현 효과를 탐색한다.

- 중봉법: 붓을 수직으로 세워서 붓끝을 획의 중심에 두고 그리는 방법이다.
- 편봉법: 붓을 비스듬히 기울여서 그리거나 칠하는 방법이다.



체험 표현 수묵 담채화의 특성 탐색하기, 수묵 담채화의 재료와 표현 방법 익히기

교과서 96~97쪽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묵 담채화의 특징과 표현 방법을 안다. 수묵 담채화의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과 표현 방법을 다양하게 익혀 본다.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묵 담채화의 특징과 표현을 이해하였는가? 수묵 담채화의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과 표현 방법을 다양하게 익혀 보았는가?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찰법, 실기 평가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수묵 담채화 감상 자료 학생: 수묵 담채화용 붓, 벼루, 먹, 먹물, 한국화나 수채화 물감, 화선지, 종이 받침, 물통, 서진, 수묵 담채화용 팔레트나 접시

지도상의 유의점

● 수묵 담채화는 3, 4학년에서 배웠던 수채화, 수묵화와 어떻게 다른지 알도록 한다.

- 충분한 예시를 통해 수묵 담채화의 개념을 알도록 자세히 설명한다.
- 다양한 표현 방법이 구사된 수묵 담채화 작품들을 되도록 많이 제시하여 표현 방법의 다양함을 체험하고, 선, 색, 수묵의 농담 변화 등에 따라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유도한다.
- 수묵 담채화에 필요한 재료와 용구의 종류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수묵 담채화의 여러 표현 방법을 다양하게 체험하고 탐색하는 가운데 표현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한다.
- 우리 전통 그림에서 선조들은 주제에 따라 종이의 크기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림을 표현하였음을 알게 한다.

교수·학습 과정

▶ 들어가기

T: 수묵 담채화는 어떤 그림일까요?

S: 먹물로 그리면서 채색도 더한 그림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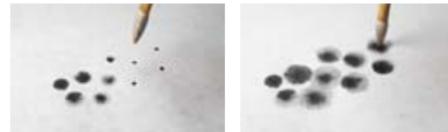
S: 주로 얇은 색으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 **와봉법:** 붓을 거의 눕혀서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칠하거나, 삼목 등 농담의 변화를 살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4 수묵 담채화의 다양한 표현 방법 익히기

- 교과서 97쪽의 그림을 보고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먹물과 물감의 양을 조절해 가며 농담의 변화를 여러 가지로 탐색해 본다.
- 먹물과 물감을 여러 가지 비율로 섞어 가며 농담의 다양한 변화와 아름다움을 탐색해 본다.
- 진하게 그리고 싶을 때에는 중묵을 기준으로 붓끝에 진한 먹물이나 물감을 묻히고, 연하게 그리고 싶을 때에는 물을 더한다.
- 화선지에 먹물이나 물감이 번지는 효과를 잘 살려 먹과 먹의 번짐, 먹과 색의 번짐, 색과 색의 번짐 등 여러 가지 변화를 다양하게 탐색해 본다. 이때, 종이의 번지는 성질에만 한정하지 않고, 번지게 하고 싶은 부분을 미리 물로 칠한 후 그리거나, 먼저 그리고 나서 마르기 전에 그 위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번지는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있음을 소개한다.



먹으로만 나타낸 점 먹 위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번지는 효과를 강조한 점

- 채색하지 않고 다양한 선으로만 형태를 표현하는 백묘법, 윤곽선을 그린 후 채색하는 구름법, 윤곽선 없이 색채나 수묵을 사용하여 형태를 표현하는 물골법과 같이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음을 소개한다.



정리하기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부분과 표현 효과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 자연스러운 색의 변화와 번짐의 아름다움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 새롭게 알게 된 표현 효과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 재료와 용구를 정리하는 법을 알아본다.
 - 붓은 먹물이나 물감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행구어 털이 꼬이지 않도록 가지런하게 말려 보관한다.
 - 팔레트는 물로 잘 닦아 내고 화선지나 신문지로 닦아 말린다.
 - 쓰다 버리게 된 화선지는 잘 말려 두었다가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붓의 물기를 조절하거나 발색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면 좋다.
 - 남은 화선지는 접히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잘 말아 보관한다.

장한중(조선/1768~1815) 꺾어도(종이에 수묵 담채/ 25.6 × 29.4cm/조선 시대/국립 중앙 박물관 소장)

쓰가리를 그린 장한중의 작품이다. 쓰가리를 뜻하는 '꺾어'의 '꺾'이 궁궐의 발음과 같아, 나라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염원을 담은 뜻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의 전통 그림은 여러 가지 좋은 의미나 염원을 담아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천경자(한국/1924~) 금어도(종이에 수묵 담채/68.5 × 70cm/1970년 대/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천경자의 작품으로 배경이나 부가 설명을 생략하고 주제만을 무리 지어 그리던 경향의 그림이다. 여러 마리의 금붕어가 서로 뒤엉켜 움직이는 모습을 물골법으로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뛰어난 색채감이 돋보인다.

장한중(조선/1768~1815)

호는 옥산. 조선 시대 정조 때 화원으로 1795년(정조 19) '원행음묘정리의궤' 제작에도 참여했다. 이들 장윤량과 더불어 조선 시대 화단에서 물고기와 게 그림 등 어해도(漁蟹圖)에 특히 능했던 화가로 유명하다. 유작으로 '어해도', '미꾸라지', '이어도', '어패도' 등이 있다.

천경자(한국/1924~)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류 화가로서, 해방 이후 전라남도 광주에서 교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의 신비, 인간의 내면세계 등의 이미지를 주로 꽃과 여인을 통해 표현하였다. 아프리카와 유럽 등지를 여행하며 미국적인 풍물을 독창적이고도 환상적인 색감과 형태로 그린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수묵 담채화로 표현하기

3학년 120회

표현 ★ 수묵 담채화의 특성을 살려 주제를 표현해 봅시다.

밑그림 그리는 방법

- 밑그림 없이 화선지에 직접 그릴 수 있어요.
-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린 후, 그 위에 화선지를 올려 그릴 수 있어요.

▲ 인문빈(학생 작품) 버섯가족의 나들이(종이에 수묵 담채/28×40cm)

▲ 허형(학생 작품) 가을(종이에 수묵 담채/38×21.2cm)

▲ 김시현(학생 작품) 부엉이(종이에 수묵 담채/24×16cm)

▲ 조민범(학생 작품) 흥경(종이에 수묵 담채/32×57cm/부분)

98 5-1. 먹과 채색의 어울림

표현 수묵 담채화로 표현하기

수업 목표	수묵 담채화의 특성을 살려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평가 기준	수묵 담채화의 특성을 살려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평가 방법	관찰법, 실기 평가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수묵 담채화의 감상 자료 학생: 수묵 담채화용 붓, 벼루, 먹, 먹물, 한국화·수채화 물감, 화선지, 종이 받침, 물통, 서진, 수묵 담채화용 팔레트 나 접시

지도상의 유의점

- 수묵화와 수묵 담채화를 엄격히 구분하기보다는 3, 4학년 때 배운 수묵화의 표현을 기본으로 채색을 자연스럽게 도입하도록 한다.
- 용어나 기법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전통 회화에 친숙

함을 느끼며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선, 색, 수묵의 농담 변화 등에 따라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하고, 선택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학습 과정

▶ 들어가기

1 수묵 담채화의 표현 방법 확인하기

- T:** 지난 시간에 익혔던 수묵 담채화의 표현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 S:** 붓의 각도에 따라 그어지는 선의 모양이 달라졌어요.
- S:** 선으로만 표현하는 백묘법, 선으로 형태를 그린 뒤 색을 칠하는 구름법, 윤곽선 없이 색채나 수묵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물골법이 있었어요.
- S:** 그림을 그린 뒤 마르기 전에 물방울을 엮어 번지도록 하는 표현 방법도 있었어요.
- S:** 번지게 하고 싶은 부분을 미리 물로 칠한 후에 그리거나, 먼저 그리고 나서 물방울을 떨어뜨려 번지게 할 수도 있어요.
- T:** 오늘은 전 시간에 익힌 수묵 담채화의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싶은 주제를 표현해 볼 거예요.

▶ 전개하기

1 수묵 담채화의 특성을 살려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 주제를 생각하여 종이의 모양과 크기를 정한다.
 - 서양에서는 주로 황금 비율에 따른 규격화된 종이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지만, 우리 전통 그림은 주제에 따라 자유로운 규격과 형태의 종이에 그려져 왔음을 알고 선조들의 호방하고 여유로운 예술관을 이해하게 한다.
 - 무엇을 표현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고 주제에 어울리는 종이의 정사각형, 직사각형, 긴 장방형, 마름모형, 부채형, 둥근형 등 모양과 크기를 정한다.
-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표현 방법과 여백의 효과를 생각하며 그린다.
 - 너무 복잡하거나 작은 형태를 피하고, 되도록 표현하기 쉬운 단순한 소재를 주제로 정한다.
 - 먼저 연필로 스케치해 본 후, 본떠 그릴 수도 있다.
 - 주로 화면의 앞쪽이나 중요한 것은 진하고 굵게, 뒤쪽이나 부수적인 것은 연하게 그려 원근감을 표현한다. 이때, 윤곽선을 본뜬 수도 있지만, 밑그림의 형태를 본떠 물골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 배경은 주제의 내용과 위치를 고려하여 여백의 효과를 살려 표현한다.
- ‘버섯 가족의 나들이’에서는 열은 먹으로 점을 찍어 그린 바닥과 얇은 선으로 그린 풀밭, 굽지만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려진 버섯이 대조를 이루며 잘 어우러졌다. 버섯의 갓 부분은 먹선을 사용하지 않고 기둥 부분만 먹선으로 강조한 점도 재미있다.
- ‘부엉이’에서는 주로 먹선과 색 선만으로 부엉이의 깃털과 형태를 잘 표현하였다. 선의 반복된 중첩만으로도 형태를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을’에서는 크고 우람한 가을 나무의 모습을 강렬하고 변화무쌍한 먹선으로 잘 표현하였으며, 이와 어우러지는 가을 단풍의 아름다운 색깔을 조화롭게 나타내었다. 먹선의 굵기와 먹색의 농담 변화가 매우 효과적이다.
- ‘풍경’에서는 현대적인 풍경을 산수화처럼 평화롭게 화폭에 담고 있다. 겹겹이 둘러싸인 산의 웅장함, 아기자기한 건물과 달리는 기차가 서로 조화롭게 표현되었다. 또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산의 초록색을 다양한 색깔과 농담으로 처리하여 변화를 주었다.

정리하기

- 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어떤 표현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는지 이야기한다.
- 서로의 작품에서 주제는 무엇이고, 그 주제를 어떻게 드러냈는지 이야기한다.
- 서로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 ② 재료와 용구를 정리한다.
- 붓은 먹물이나 물감 찌꺼기가 남지 않게 깨끗이 헹구어 털이 꼬이지 않도록 가지런하게 말려 보관한다.
- 팔레트는 물로 잘 닦아 내고 쓰다 버리게 된 화선지나 신문지로 닦아 말린다.
- 쓰다 버리게 된 화선지는 잘 말려두었다가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붓의 물기를 조절하거나 발색을 확인하는 데 활용한다.
- 남은 화선지는 접히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잘 말아 보관한다.

수묵 담채화의 또 다른 표현 방법

구름법, 물골법 등 수묵 담채화의 기본적인 표현 방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적절히 응용함으로써 더욱 다채롭고 다양한 표현을 구사할 수 있다.

발묵법

붓에 먹을 듬뿍 찍어 쏟아 붓는 듯이 그림으로써 튀거나 번지는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적묵법

얇은 담묵이 마른 뒤에 여러 번 층층이 덧칠해 나가는 방법으로, 먹이 겹쳐 쌓여 차분하고 중후한 분위기를 낸다.



파묵법

담묵으로 그린 위에 농묵으로 담묵의 느낌을 깨는 방법이다.



운염법

물질을 한 지면에 먹이나 물감의 번지는 성질을 이용하여 열게 퍼지게 그리는 방법으로, 안개나 구름 등의 표현에 주로 쓰인다.



삼묵법

짙은 먹색의 농묵, 중간 먹색의 중묵, 얇은 먹색의 담묵을 붓 하나로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으로 농담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갈필법

붓으로 한 번 짙은 먹물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려지고 잘 번지지만, 그것을 연속해서 사용하면 물기가 적어져 붓끝이 갈라지므로 거친 느낌이 나게 된다. 의도적으로 붓의 물기를 적게 하여 거칠고 메마른 효과를 내기도 하는데, 바위나 나무 껍질 등의 표현에 주로 쓰인다.



수묵 담채화 작품 감상하기

★ 수묵 담채화의 표현 방법과 효과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 ① 작품은 무엇을 표현하였나요?
- ② 작품에서 사용한 표현 방법과 효과를 이야기해 보세요.
- ③ 수채화와 수묵 담채화의 표현 방법과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요?



▲ 박순철 (한국/1965-) 송무(중어)에 수묵 담채 (89.5×108cm/2002년 작) ▲ 김홍식 (한국/1954-) 장미(무채)에 수묵 담채 (25×37cm/2012년 작)



▲ 장무성 (한국/1912-2005) 복숭아(중어)에 수묵 담채 (69×169cm/1963년 작) ▶ 김재원 (학생 작품) 행복(중어)에 수묵 담채 (24×19cm)

- ① **재현** 수묵 담채화에서 형태를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 ② **표현** 내가 정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했나요?
- ③ **감상** 수채화와 다른 수묵 담채화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수묵 담채화 99

감상 수묵 담채화 작품 감상하기

교과서 99쪽

수업 목표	● 수묵 담채화 작품을 감상하며 표현 방법과 효과에 대해 이야기한다.
평가 기준	● 수묵 담채화 작품을 보고 표현 방법과 효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가?
평가 방법	● 구술 평가, 감상문
준비물	● 교사: 수묵 담채화 감상 자료 ● 학생: 필기도구

지도상의 유의점

- 제시된 수묵 담채화 감상 작품에 표현된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주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표현 방법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사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수묵 담채화는 수채화나 유화와 비교하면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우리 전통 미술만이 지니는 특징과 장점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수묵 담채화와 관련된 미술 용어들을 사용하여 작품에 나타나는 특징을 이야기해 본다.
- 오늘날 수묵 담채화는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과 쓰임새로 응용, 활용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교수·학습 과정

▶ 들어가기

- T: 교과서 99쪽에는 어떤 그림들이 있나요?
- S: 토끼를 그린 그림이 있고, 전통춤을 추는 장면을 그린 그림도 있어요.
- S: 부채에 그린 그림도 있고, 복숭아를 그린 것도 있어요.
- T: 오늘은 다양한 수묵 담채화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거기에 나타난 표현 방법과 효과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 전개하기

1 주제와 표현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기

- ① 교과서 99쪽의 수묵 담채화 작품들을 감상하며 주제와 표현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 T: ‘행복’은 무엇을 표현한 것인가요?
- S: ‘행복’은 수묵 담채화로 표현한 작품인데, 제목이 ‘행복’인 걸 보니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주제로 그린 그림인가 봐요.
- T: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그렸나요?
- S: 굵은 먹선으로 윤곽선을 뚜렷하게 그린 후, 먹색의 농담과 번지기 효과를 잘 써서 털의 부드러운 느낌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 T: 어떤 느낌이 드나요?
- S: 귀의 붉은 부분에서 농담 표현이 잘 되어 입체감이 느껴져요.
- S: 바닥의 풀꽃과 흙의 표현에서도 수묵 담채화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 T: ‘복숭아’는 무엇을 표현한 것인가요?
- S: 복숭아 나뭇가지에 복숭아가 탐스럽게 열린 모습을 표현했어요.
- T: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그렸나요?
- S: 앞쪽에 있는 복숭아와 나뭇잎들은 선명한 색으로 그리고, 멀리 있는 것들은 멀어지는 만큼 점점 더 흐리고 연하게 그려 원근감을 표현했어요.
- S: 복숭아는 먹선을 사용하지 않고 채색만을 이용하는



물골법으로, 나뭇잎은 먹선과 채색을 함께 사용하는 구름법으로 표현했어요.

S: 먹색과 물감을 자연스럽게 번지게 하여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T: 어떤 느낌이 드나요?

S: 먹색에 물감을 더해 생생한 느낌이 들어요.

S: 붉게 익은 복숭아와 푸르고 싱싱한 잎사귀가 함께 그려져 있어서 서로 돋보이게 해요.

S: 화면을 가득 채우지 않고 비워놓아 여유로운 느낌이 들어요. 화면의 여백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화면의 왼쪽 윗부분과 오른쪽 아랫부분으로 균형을 맞춰 여백이 많아도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T: ‘승무’는 무엇을 표현한 것인가요?

S: 우리 전통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에요.

T: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그렸나요?

S: 흰 고깔과 옷은 가는 먹선으로만 그렸고, 붉은 피와 겉옷은 윤곽선 없이 농담의 변화만으로 표현해서 춤추는 동작과 팔의 움직임이 생동감 있게 잘 나타나 있어요.

S: 소매와 옷자락의 질고 얇은 농담 표현과 부드럽고 거친 먹선이 골고루 잘 표현되었어요.

T: 어떤 느낌이 드나요?

S: 팔의 움직임이 잘 나타나도록 그려서 소맷자락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S: 가는 먹선으로만 그린 흰옷의 주름도 실감 나고 효과적이에요.

S: 전체적으로 빠른 속도로 그린 것 같아요.

S: 간결하게 색을 많이 쓰지 않고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T: ‘장미’는 무엇을 표현한 것인가요?

S: 부채에 장미꽃 한 송이를 그린 작품이에요.

T: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그렸나요?

S: 부채에다 직접 그렸고, 분홍색의 농담을 잘 살려 장미꽃잎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S: 윤곽선을 그렸으면 뚜렷하게는 보여도 꽃의 은은한 느낌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역시 이런 뎀 농담만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에요.

S: 여백의 아름다움을 고려해서 구도를 잘 잡았어요.

T: 어떤 느낌이 드나요?

S: 부채를 부치면 바람에 꽃향기가 날 것 같아요.

S: 장미꽃을 한 송이만 그렸는데도 멋진 작품이 되었어요.

S: 네모난 종이가 아니라 부채에다 직접 그리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S: 뽀뽀하게 가득 채워 그리는 것보다 여백이 있는 것이 더 운치 있게 느껴져요.

2 작품을 보고 느낀 점이나 알게 된 점을 감상문으로 쓰기

① 작품별로 표현의 특징과 느낌, 감상을 통해 알게 된 점 등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감상문을 써 본다.

- 번짐, 먹색, 농담, 발묵, 발색, 여백 등 수묵 담채화와 관련된 미술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사용하여 쓰도록 한다.

② 각자의 감상문을 발표하고 서로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공유한다.

정리하기

① 수묵 담채화 작품을 감상하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②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바탕으로 수묵 담채화를 그릴 때 주의할 점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③ ‘스스로 평가하기’를 중심으로 단원 내용을 정리한다.



스스로 평가하기

- 수묵 담채화에서 형태를 그리는 서로 다른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 ➔ 선으로만 표현하는 백묘법, 선으로 형태를 그린 뒤 색을 칠하는 구름법, 윤곽선 없이 면으로만 형태를 직접 표현하는 물골법이 있다.

- 내가 정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했나요?

- ➔ ‘풍경’에서는 겹겹이 둘러싸인 산의 웅장함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강한 먹선으로 겹쳐진 산의 형태를 강조하고 산의 초록색을 다양한 색감과 농담으로 처리하여 변화를 주었다.

- 수채화와 다른 수묵 담채화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 도화지에 수채 물감과 수채화용 붓으로 그리는 수채화와 달리 화선지에 먹과 한국화 물감, 수묵 담채화용 붓을 이용해서 그린다.

참고 문헌

홍익대학교 박물관, 한국 근현대 회화, 1999.

한국미술협회, 2008 문인화초대작가전, 2008.

이경모 저, 한국화 실기총서 II, 미술공론사, 2007.

서울 미술관, 서울 미술관 개관 기념 대표 작가 초대전, 이화문화출판사, 2008.



수묵 담채로



준비물

교사

수묵 담채화와 수묵화의 특징이 잘 드러난 참고 작품

학생

활동지, 필기도구



평가 방법

감상문



수묵 담채화의 특성 탐색하기

교과서 96쪽

수묵 담채화의 특징과 표현 효과 탐색하기

_____학년 _____반 이름 _____

● 수묵 담채화와 수묵화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 수묵 담채화의 특징과 표현 효과에 대해 관련 용어들을 사용하여 써 보세요.

● 선과 색, 수묵의 농담 변화 등의 표현 방법과 그 느낌은 어떠한가요?

● 교과서 96쪽의 ‘꺾어도’와 ‘금어도’에서 물고기를 그리는 방법과 표현 효과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채색의 아름다움

심화

소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채색화를 처음으로 접하는 6학년 학생들에게 채색화가 어떤 그림인지 알게 하고, 이에 필요한 재료와 용구의 기초적인 사용법 및 붓과 아교, 장지에 의한 효과와 채색화의 기초적인 표현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채색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필요한 재료와 용구의 종류, 기초적인 성질과 사용법을 익혀 주변의 식물이나 꽃을 주제로 채색화를 그린 뒤, 전통 채색화 작품을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 채색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채색화 기법은 5학년에서 배운 수묵 담채화와 비교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단원의 목표

- 채색화와 수묵 담채화를 비교하고, 채색화의 특징을 안다.
- ▲ 채색화에 필요한 재료와 표현 기법을 익힌다.
- ▲ 덧칠하기와 풀어 주기 기법을 활용하여 채색화를 그린다.
- 채색화로 표현된 다양한 종류의 전통 회화를 감상하며 특징을 안다.

수업의 구성

구분	제재명	교과서 쪽수	지도서 쪽수	주요 학습 활동	차시
체험	채색화 탐색하기	100	227~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색화와 수묵 담채화 비교하기 • 채색화의 특징 알아보기 	5
표현	채색화 재료와 기법 익히기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색화 재료와 용구 사용법 알기 • 아교의 성질을 알고 바탕칠하기 • 덧칠하기와 풀어 주기 기법 익히기 • 채색 기법으로 꽃이나 식물 표현하기 	
	채색화 그리기	102	230~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색화로 표현된 전통 회화 감상하기 • 작품에서 채색 기법의 특징 찾기 	
감상	전통 채색화 감상하기	103	232~233		

※ 수업의 구성은 학교 상황이나 여건, 학생들의 수준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바랍니다.

학습 평가

■ 체험 ▲ 표현 ● 감상

교육 과정 내용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상	중	하
■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 발견하기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를 비교하여 채색화의 시각적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를 비교하여 채색화의 시각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다.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를 비교하여 채색화의 시각적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를 비교하여 채색화의 시각적 특징을 찾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 여러 가지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 표현 과정 등을 탐색하여 표현하기	채색화 붓과 한지, 아교, 물감 등의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과 표현 과정 등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채색화 붓과 한지, 아교, 물감 등의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과 표현 과정을 알고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다.	채색화 붓과 한지, 아교, 물감 등의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과 표현 과정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채색화 붓과 한지, 아교, 물감 등의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과 표현 과정을 알고 표현하는 데 미흡하다.
●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별 특징과 변천 과정을 알아보고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기	전통 채색화의 종류와 표현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전통 채색화의 종류와 표현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전통 채색화의 종류와 표현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전통 채색화의 종류와 표현 특징을 이야기하는 데 미흡하다.

5-1. 먹과 채색의 어울림

채색의 아름다움

채색화의 특징을 알고, 재료와 채색 기법을 익혀 그려 봅시다.

우리는 조상들은 화려하고 장식적인 채색 기법으로 벽화, 불화, 궁중 회화, 민화, 초상화 등의 작품을 그려 왔습니다. 먹색도 사용하지만 주로 채색으로 진하게 표현한 그림을 채색화라고 합니다. 채색화는 어떻게 그릴까요?

채색화 탐색하기

★ 채색화와 수묵 담채화를 비교하고, 채색화의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 어떤 재료를 사용했나요?
- 작품의 표현 특징을 비교해 보세요.
- 색의 표현 방법에 따라 작품이 주는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요?

▲ 이주연(학생 작품) 나뉘어 앉은 참새(종이에 수묵 담채/40×51cm) ▲ 원현우(학생 작품) 매화나무에 앉은 매(종이에 채색/39×30cm)

수묵 담채화는 먹이나 물감의 혼합색을 사용하여 표현하며, 채색화는 색을 진하게 표현하여 색을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이름에 어울림: 채색화, 벽화, 불화, 궁중 회화, 초상화, 장지 → 종이 열기 121쪽

준비 활동: 다양한 채색화 작품을 살펴보세요.

채색화 재료와 기법 익히기

★ 채색화 그리기에 필요한 재료와 용구의 쓰임, 표현 기법을 알아봅시다.

아교

아교는 동물의 가죽·힘줄·뼈를 끓여서 만든 점액제예요. 채색 물감의 번짐을 줄이기 위해 바탕지에 발라요.

붓

비탕칠용 평붓(●) 털이 짧은 통통한 붓 2개 (채색용 못●, 물 못●)

한국화 물감

아교를 섞어 쓰는 가루 물감인 분채나 석채를 주로 써요. 하지만 아교가 섞여 있는 튼튼 물감을 사용하면 편리해요.

★ 바탕지 제작 과정과 채색화 표현 기법을 익혀 봅시다.

이렇게 해요

- 액체 아교와 물을 1:4로 섞어 아교 물을 만듭니다.
- 투박 물감의 하양+황토색+원하는 색 + 약간의 먹물을 섞어 바탕칠 할 물감을 만들고 아교물을 붓는다.
- 장지 위부드러운 면에 준비한 2를 평붓으로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칠하고 말린다.

- 채색 붓으로 짙은 색에서 옅은 색의 손으로 덧칠한다.
- 물기만 있는 붓으로 짙은 색과 옅은 색의 경계 부분을 풀어 색을 자연스럽게 열게 한다.

▲ 박아란(학생 작품) 갈(종이에 채색/30×39cm)

이것을 풀어 주기라고 해요.

체험 표현 채색화 탐색하기, 채색화 재료와 기법 익히기

교과서 100~101쪽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색화와 수묵 담채화를 비교하고, 채색화의 특징을 안다. • 채색화에 필요한 재료와 표현 기법을 익힌다.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색화와 수묵 담채화를 비교하여 채색화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채색화에 필요한 재료와 표현 기법을 바르게 익혔는가?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상문(비평문), 관찰법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 감상 자료 • 학생: 필기도구, 사진기, 흰 종이, 연필, 지우개, 바탕칠한 장지, 먹지, 불펜, 붓, 베투, 먹, 먹물, 물통, 접시, 한국화 튼튼 물감, 채색 붓과 물 붓

지도상의 유의점

- 기초의 수묵 담채화 표현 활동의 경험을 상기한다.
-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를 자세히 살펴보고 주제, 재료, 표현 기법 등 다양한 기준의 특징을 찾아 비교한다.
- 본래는 아교물을 바르고 바탕색을 칠하지만, 현장에서는 시간 절약을 위해 아교물에 물감을 섞어 한 번에 바탕칠을 한다.
- 바탕칠 후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말린다.
- 덧칠하기와 풀어 주기 기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다음 차시의 채색화 그리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수·학습 과정

들어가기

1 채색화 탐색하기

- T: 두 그림은 무엇을 표현했나요?
 S: 왼쪽 그림은 참새를 표현했고, 오른쪽 그림은 매를 표현하였습니다.
 T: 두 그림 중 채색화는 어떤 그림일까요?
 S: 오른쪽의 매 그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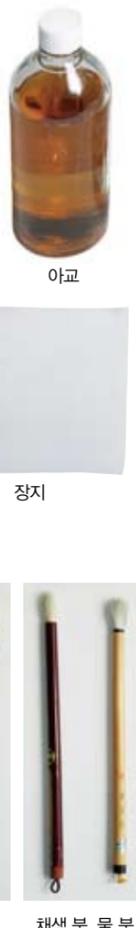
- T:** 두 그림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그렸을까요?
S: 한지에 한국화 물감을 사용한 것 같아요.
T: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의 표현 특징을 비교하여 보세요.
S: 수묵 담채화는 물을 많이 타서 묽게 한 붓으로 표현한 것 같고, 채색화는 색을 진하게 여러 번 덧칠해 표현한 것 같습니다.
T: 맞아요. 그래서 채색화는 진하게 채색한 그림이라는 뜻으로 '진채화'라고도 합니다.
T: 표현 방법에 따라서 작품이 주는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요?
S: 수묵 담채화는 채색화보다 색이 묽게 칠해지고 번진 부분도 있어서 맑고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반면에 채색화는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사실적이며 견고한 느낌이 들어요.
T: 오늘은 채색화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 전개하기

1 채색화의 재료와 용구의 이름 및 쓰임 알아보기

① 준비해 온 채색화의 재료와 용구를 보며 이야기한다.

- **아교:** 아교는 동물의 가죽, 힘줄, 뼈를 끓여서 만든 점착제를 말한다. 채색화에서 한지의 번짐을 줄이기 위해 아교 물을 희석해서 바른다. 아교는 모양에 따라 막대 아교, 알 아교, 액체 아교가 있는데, 수업 시에는 병에 담긴 액체 아교가 편리하다.
- **장지:** 채색화를 그릴 때에는 두껍고 질긴 한지인 장지를 주로 사용한다. 장지는 화선지보다 두껍고 질겨서 스며들거나 번짐이 적고, 색을 여러 번 겹쳐 칠해도 찢어지지 않아 깊이 있고 화려한 색을 표현할 수 있다.
- **평붓:** 한지에 바탕칠할 때 쓰는 폭이 넓고 평평한 붓이다.
- **채색 붓, 물 붓:** 채색화용 붓은 수묵화용 붓보다 붓털의 길이가 짧고 통통한 모양으로 채색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덧칠하기 기법에 적합하다. 칠할 때 쓰는 채색 붓과



풀어줄 때 쓰는 물 붓으로 2개 준비한다.

- **튜브:** 한국화 안료에 아교가 이미 고루 섞여 튜브에 담긴 것으로 저렴하고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 **접시채:** 접시에 한국화 안료와 아교를 섞어 굳힌 접시 물감은 튜브 물감보다 발색력이 좋으나, 값이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 **분채와 석채:**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천연 안료로서 가루 상태의 물감이다. 곱게 갈아서 아교와 섞어 쓴다.



2 바탕지 제작하기

① 준비해 온 바탕칠 재료를 확인한다.

- 벼루와 먹, 먹물, 장지, 액체 아교, 물, 종이컵, 평붓, 넓직한 접시, 한국화 물감(호분, 황토, 원하는 색)



② 바탕지 제작하기

- 1단계: 액체 아교와 물을 1:4로 섞어 아교물을 만든다.
- 2단계: 호분(흰색)과 황토 물감에 원하는 색을 섞고 먹물을 약간 첨가하여 바탕칠할 물감을 만들고 아교물을 붓는다.
- 3단계: 2단계에서 만든 액체를 장지의 부드러운 면에 평붓으로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칠하고 말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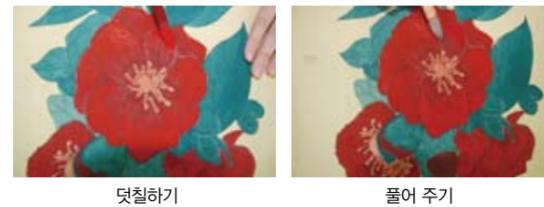


아교 포수

채색화에서는 착색력을 높여 화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지에 아교물을 골고루 칠하는데, 이를 '아교 포수'라고 한다. 이는 종이에 바로 착색하는 것보다 비교적 입자가 굵고, 아교와 종이에 친화성이 높은 호분과 황토를 종이의 성분인 셀룰로오스 사이에 충전하여 뒤에 칠하는 안료의 부착력을 높이고, 아울러 발색을 좋게 하려는 것이다. 칠을 할 때에는 약간 묽게 하여 바탕 종이 속으로 깊게 스며들도록 해야 하며, 건조하여 가면서 3회 이상 반복하여 균일하게 칠하는 것이 좋다.

3 덧칠하기와 풀어 주기 기법 익히기

- ① 채색화를 표현하는 덧칠하기 기법을 익힌다.
 - 채색 붓으로 한 번에 칠하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칠한다.
 - 채색화에서 입체감을 내기 위해 물감을 점차적으로 쌓아 올릴 때 주로 쓰는 방법이다.
- ② 채색화를 표현하는 풀어 주기 기법을 익힌다.
 - 덧칠을 한 후에는 물 붓으로 자연스럽게 경계를 풀어 색을 얹게 풀어 퍼 준다.
 - 덧칠을 하면 물감이 뭉치거나 붓 자국이 남아서 부자연스러운데, 채색화에서는 이를 방지하고 착색력을 높이고자 물 붓을 사용해 살살 문질러서 경계를 풀어 준다.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

'수묵 담채화'는 먹색의 농담 효과를 위주로 하되 얇은 채색을 더한 그림을 말한다. 먹의 농담을 조절하여 표현한 후 채색하거나, 채색을 먼저 한 다음 먹선을 그리기도 한다. '채색화'는 먹색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주로 채색을 질게 사용하여 표현하는 그림을 말한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표현 방법이다. 재료 면에서 수묵 담채화는 화선지를 쓰고, 채색화는 아교 물을 바른 장지를 쓴다. 재료는 곧 표현 기법의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 스며들고 번지는 효과가 중요한 수묵 담채화는 얇은 종이를 쓰며, 덧칠하고 풀어 주어 깊이 있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채색화는 두껍고 질긴 장지를 사용하며 번짐을 막기 위해 아교물을 바른다.

전통 채색화 표현 방법 알기

요철법

채색화에서는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요철법을 쓴다. 요철법이란 튀어나온 곳은 명도가 높은 색을 두껍게 섞어서 밝게, 들어간 곳은 명도가 낮은 색깔로 얇게 칠하는 방법이다.



노숙자(한국/1943~) 목단(종이에 채색/96×90cm/2006년 작)-여러 번 덧칠하여 요철법을 실현한 현대 채색화 화가 노숙자의 작품이다. 목단 꽃과 잎사귀의 묘사에 채색 기법의 특징이 잘 살아 있다.

덧칠하기

채색화는 덧칠할수록 깊은 색을 띤다. 같은 색을 칠하더라도 화면에 한 번에 진하게 칠하는 것보다 같은 양을 10회 분 이상으로 나누어 여러 번 겹쳐 칠하는 것이 더 깊이 있고 우아한 색을 낼 수 있다. 단, 아교의 누적으로 오히려 채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깊이 있고 우아한 색의 표현을 위해 반복적인 덧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 3단계 정도 덧칠하여 완성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

▶ 정리하기

- ① 채색화에 대해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 두꺼운 장지 위에 아교물과 물감을 섞어 바탕칠을 하여 번지지 않도록 처리한다.
 - 여러 번 덧칠하고 풀어 주어 진하고 깊이 있는 느낌을 준다.
 - 여러 번 덧칠하여 은은하고 우아하며, 장식적이고 화려하다.
- ② 바탕칠을 하고 나서는 종이를 충분히 건조한다.
 - 벼루와 먹, 먹물, 장지, 액체 아교, 물, 종이컵, 평붓, 넓직한 접시, 한국화 물감(호분, 황토, 원하는 색)



채색화 그리기

★ 꽃을 관찰하여 채색화로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해요



1 꽃이나 식물을 관찰하여 스케치한다. 2 밑그림과 바탕지 사이에 먹지를 놓고 베껴낸다.



5 꽃송이를 선명하게 건조하여 마무리한다.



▲ 주현지, 이새민, 양현영, 원현준, 김도진, 방수진(학생 활동 작품) 꽃과 나비(장지에 채색/각 35×25cm)

102 5-1. 먹과 채색의 어울림



표현 채색화 그리기

교과서 102쪽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색화 기법으로 꽃을 표현한다. • 덧칠하기와 풀어 주기 기법을 활용하여 3단계로 채색한다.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덧칠하기와 풀어 주기 기법을 활용하여 꽃을 사실적으로 채색하였는가?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법, 실기 평가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수목 채색화 감상 자료 • 학생: 사진기, 흰 종이, 연필, 지우개, 바탕 칠한 장지, 먹지, 볼펜, 붓, 베틀, 먹, 먹물, 물통, 접시, 한국화 튜브 물감, 채색 붓과 물 붓

지도상의 유의점

- 실제로 야외로 나가서 사생하여 스케치할 수도 있고, 접사로 촬영된 꽃이나 나비 사진을 출력해 활용할 수도 있으며, 채색화로 그려진 민화 작품의 전체나 부분을 확대하여 묘사할 수도 있다.

- 전 차시에 미리 바탕칠한 장지가 충분히 건조된 후 먹지와 볼펜으로 밑그림을 베끼도록 한다.
- 덧칠하기와 풀어 주기 기법을 활용하여 꽃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시간과 능력이 허락되는 학생은 3단계보다 더 여러 번 덧칠하여 깊이 있는 묘사를 하도록 지도한다.
- 학생의 수준에 따라 장지의 크기를 A4 크기나 그보다 작게 준비해서 제공하도록 한다.



교수·학습 과정

▶ 들어가기

1 재료와 용구 확인하기

- T:** 채색화를 그리기 위한 재료와 용구에는 무엇이 있나요?
- S:** 밑그림을 그릴 A4용지, 연필, 지우개와 밑그림을 베껴 그릴 바탕칠한 장지, 먹지와 볼펜이 필요해요. 또 채색을 할 한국화 튜브 물감과 넓적한 접시, 채색 붓과 물 붓, 먹물과 먹, 베틀, 물통이 필요해요.
- T:** 재료와 용구가 준비되었으면 채색화 그리기를 시작해 볼까요?

▶ 전개하기

1 밑그림 그리기

- ① 채색화로 표현할 꽃을 정하고 자세히 관찰한다. 멀리서 본 모습보다는 가까이에서 관찰한 모습을 확대하여 그려야 덧칠하기가 좋다.
- 꽃잎, 암술·수술의 꽃 부분, 잎과 줄기 등 꽃의 구조를 이야기해 본다.
 - 꽃을 직접 관찰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야외에 피어 있는 꽃의 경우에는 사진을 찍은 뒤 출력하여 그리기와 채색에 활용하면 편리하다.
- ②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꽃을 스케치하고 연필 선을 하나로 가지런히 정리한다.
- 먹지에 베껴야 하므로 스케치 선이 하나로 정리되어야 한다.

2 바탕지에 밑그림 베끼기

- ① 바탕지와 밑그림 사이에 먹지를 대고 볼펜으로 베껴 그린다.
- 검은색 볼펜보다는 색깔이 있는 볼펜이 눈에 더 잘 띄어서 베끼기 쉽다.
 - 바탕지 위에 먹선이 베끼 스케치처럼 잘 보인다.

3 3단계로 채색하기

- ① 그림을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로 채색해 나간다.
- 교과서에서는 구분하기 쉽도록 꽃의 채색과 잎의 채색으로 구분하여 제시했지만, 전체적으로 1차 채색이 끝나면 2차 채색을 하고, 3차 채색으로 마무리하도록 한다.
 - 각 단계의 채색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충분히 말랐는지 확인하여 색이 번지거나 한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① 1차 채색을 할 때에는 실제 꽃과 잎의 색 물감보다 한 단계 어두운색을 만들어 쓰는데, 어두운색을 섞기도 하지만 먹물을 약간 타면 안정감 있는 색을 만들 수 있다.
- ② 2차 채색을 할 때에는 꽃과 잎 부분에서 튀어나와 보이는 바깥쪽의 $\frac{2}{3}$ 정도를 1차 채색보다 좀 더 밝은 실제 색상과 가장 유사한 색으로 덧칠하고 자연스럽게 풀어 준다.
- ③ 3차 채색을 할 때에는 꽃과 잎 부분에서 튀어나와 보이는 바깥쪽의 $\frac{1}{3}$ 정도를 2차 채색보다 좀 더 밝은 색을 만들어서 덧칠하고 자연스럽게 풀어 준다.
- ④ 꽃의 암술과 수술, 꽃봉오리도 단계에 맞춰 순차적으로 함께 채색한다.

4 마무리하기

- ① 꽃송이 등 세밀한 부분을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그림에서 튀어나와 보이는 부분을 정돈하여 완성한다.

5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여 표현하기

- ① 전통적인 채색 기법으로 표현하고 난 뒤, 심화 활동으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표현할 수 있다.
- 한지에 발랐을 때 코팅 효과가 있는 아교의 성질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 아교 농도를 짙게 하여 뿌리기를 한 뒤 말리고, 전체적으로 칠을 해 주면 그 부분만 물감이 잘 묻지 않게 된다.
 - 장지가 두껍고 질기다는 점을 활용해서 지판화로 표현할 수 있다.
 - 원하는 모양을 장지에 오려서 장지에 다시 찍는 과정을 거듭하면 중채 효과도 볼 수 있다.

! 새로운 표현 기법 알기

바탕지에 무늬 만들기

1. 아교물을 자유롭게 뿌린 후, 마르면 평붓으로 밀칠을 해 준다.



2. 바탕칠 후에 다양한 색의 물감으로 덧뿌려 무늬를 더한다.



종이로 찍기

1. 장지를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서 물감을 진하고 고르게 묻힌다.



2. 바탕지 위에 물감을 묻힌 장지를 찍어 모양을 만든다.



3. 색의 밝기를 조절하면서 여러 번 겹쳐 찍는다.



▶ 정리하기

- 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이야기한다.
- 꽃의 특징이 잘 표현되었는지 이야기한다.
 - 채색 기법을 제대로 활용해서 나타냈는지 이야기한다.
- ② 재료와 용구를 정리한다.



전통 채색화 감상하기

★ 채색화로 표현된 전통 회화를 감상하며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감상 질문

- 1 우리의 전통 회화에서 채색화로 그려진 그림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2 채색 기법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 3 채색화는 수묵화나 수묵 담채화와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 모란도(종이에 채색/62×37.5cm/조선 시대)
 ▶ 채옹신(조선/1848~1941) 최익현 초상
 (전본에 채색/51.5×41.5cm/1905년 작)



▲ 심장생도 8곡병(비단에 채색/117×375cm/조선 시대)



스스로 평가하기

- 1 채입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의 채색 방법을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 2 표현 채색화에서 덧칠하기와 풀어 주기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 3 감상 우리의 전통 그림에서 채색화로 그려진 그림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감상 전통 채색화 감상하기

교과서 103쪽

수업 목표	• 채색화로 표현된 다양한 종류의 전통 회화를 감상하며 특징을 파악한다.
평가 기준	• 전통 채색화의 종류와 표현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
평가 방법	• 연구 보고서법
준비물	• 교사: 다양한 감상 자료 • 학생: 필기도구



지도상의 유의점

- 작품 감상을 통해 한국 미술사에서 전통 채색화의 다양한 종류와 표현 특징을 이해하고 채색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채색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게 한다.
- 채색화로 표현된 다양한 전통 회화의 시대별 특징과 변천 과정을 알게 한다.
- 수묵화, 수묵 담채화와 비교하여 채색화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수·학습 과정

▶ 들어가기

- T: (103쪽의 작품을 보며) 전통 채색화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그림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S: 모두 채색화로 진하게 그렸어요.
 S: 화려한 색상이 주로 쓰였지만 경박하지 않고 우아해요.
 T: 작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 전개하기

1 작품 감상하기

- T: 우리의 전통 그림에서 채색화로 그려진 그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S: '모란도'는 조선 시대에 그려진 민화로 백성들이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집에 걸어 놓은 그림이에요.
 S: '최익현 초상'은 구한말 우국지사였던 최익현 선생의 모습을 기리기 위해 그려진 초상화예요.
 S: '심장생도 8곡병'은 조선 시대 궁중 장식화에요. 심장생은 장수를 상징하는 해, 산, 돌, 구름, 불로초, 학, 사슴, 거북, 소나무 등에 대나무와 달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 작품은 8폭 병풍에 심장생을 그린 것의 일부예요.
 T: 채색 기법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S: '모란도'는 모란 꽃잎과 잎사귀, 암석의 모습에서 덧칠하고 풀어 주기를 한 흔적이 잘 드러나 있어요.
 S: '최익현 초상'은 얼굴의 눈가와 입 부분, 귀 등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잘 나타나 있으며 요철법을 활용해 잘 표현했어요. 콧등, 볼 등의 모습이 밝은색으로 표현되어 입체적으로 보여요. 또 모자의 털 부분도 정교해요.
 S: '심장생도 8곡병'은 소나무와 산의 묘사와 학의 모습에서 요철법과 덧칠하기 기법이 잘 나타나 있어요.
 T: 수묵화와 수묵 담채화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S: 선명하고 화려하며 진한 색감으로 나타나요.
 S: 여러 번 덧칠을 거듭하여 깊이 있고 마치 살아 있는 듯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을 주어요.

▶ 정리하기

- ① 채색화에 대해 정리한다.
- 우리 조상의 열과 정신이 담긴 그림이다.
 - 아교물을 발라 번짐을 줄이는 처리를 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명하게 나타낸다.
 - 덧칠하기와 풀어 주기 기법으로 깊이 있고 진하게 나타낼 수 있다.

- 인물화, 민화, 불화 등 다양한 전통 회화에 쓰였다.
- ① '스스로 평가하기'를 중심으로 단원 내용을 정리한다.

모란도

모란도(종이에 채색/62×37.5cm/조선 시대)

모란은 예로부터 동양인들 사이에서 부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모란만을 따로 그린 것도 있지만 주로 바위와 함께 그렸으며 사군자와 조화시켜 그리거나 고양이, 수탉, 봉황 등의 동물과 함께 그리기도 했다. 꽃 중의 왕으로 임금을 상징하며, 그 자태와 화려함으로 부귀영화와 인락, 남녀의 화합을 상징한다.

채옹신(조선/1848~1941) 최익현 초상(전본에 채색/51.5×41.5 cm/1905년 작)

이 작품은 1905년에 채옹신이 그린 최익현의 74세 초상화이다. 최익현은 겨울철에 사냥꾼이 주로 사용하는 쓰개인 가죽 감태를 머리에 쓰고 심의(높은 선비의 옷)를 착용한 모습을 하고 있다. 약간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정면 반신상으로 얼굴은 요철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높낮이에 따라 밝기를 구분하여 입체감을 표현하였으며, 그 위에 갈색 선으로 대담하게 주름을 그었다. 가죽 감태의 하얀 털 표현이 거친 질감을 전해 주며 의복은 옷 주름에서 접힌 부분은 남기고 흰색을 전체(前彩)하였다.

채색화는 보는 것에 따라서 그린다고보다는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바에 의해서 그린다. 사람의 눈동자를 그릴 때도 검은자 위에 반사되어 보이는 흰색 점은 그리지 않는다. 흰색 반사광은 보이는 바의 그림이고, 검은자 위의 고유색을 잘 관찰하여 얻은 지식 그대로 동공 주위를 약간 밝게 하는 것은 관념적인 표현이다.

심장생도 8곡병(비단에 채색/117×375cm/조선 시대)

심장생은 해·산·물·돌·소나무·달 또는 구름·불로초·거북·학·사슴을 말하는데, 중국의 신선 사상에서 유래하였다. 열 가지가 모두 장수물로 자연 숭배의 대상이다.

조선 시대에는 설날에 심장생 그림을 곁내에 걸어 놓는 풍습이 있었다. 이후 향간에서도 심장생 그림을 벽과 창문에 그려 붙였고, 병풍·베갯머리, 혼례 때 신부의 수저 주머니, 선비의 문방구 등에도 그리거나 수를 놓았다. 화원풍의 청록 산수법을 많이 사용하는 등 색채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린 것이 특징이다.

H*

스스로 평가하기

-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의 표현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 ▶ 수묵 담채화는 먹이나 물감이 화선지에 스며들어 번지게 표현하고, 채색화는 번짐이 적도록 아교물을 바른 장지

위에 여러 번 덧칠하고 풀어 주어 색이 선명하다.

- 채색화에서 덧칠하기와 풀어 주기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 ▶ 하나의 대상을 한 번에 칠하지 않고 채색 붓을 사용하여 여러 번 나누어서 덧칠하고 물 붓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색의 경계를 풀어 준다.
- 우리의 전통 그림에서 채색화로 그려진 그림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 전통적으로 채색화는 심장생도처럼 실내 장식을 목적으로 그려졌거나 초상화나 종교화처럼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려졌다.



가. 민화 - 모란도

모란은 민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꽃으로, 예로부터 부귀를 상징했다. 주로 병풍에 그려져 옛날 신부집 마당의 초레청과 신혼방, 대갓집 마나님의 안방과 대청마루 등을 장식하기도 했다. 또한 비단 바탕에 고운 수로 놓여져 왕비의 원삼이나 혼례용 활옷을 화려하게 꾸미기도 하였으며, 더러는 무속과 관련된 그림에서도 자주 애용되었다. 모란은 황색, 백색, 홍색, 자색 등으로 다양하여 민화 속의 모란꽃도 다채롭게 표현된다.

모란도는 궁중 모란도, 괴석 모란도, 화병 모란도, 고성 모란도 등으로 분류되는데, 대체로 모든 모란 그림을 궁중 모란으로 높여 부르고 있다. 궁중 모란도는 대형 병풍의 형태가 많고, 대체로 도화서에서 그려진 것으로 하사품으로 내린 대형의 병풍들이 남아 있다. 괴석 모란도는 괴석을 중심으로 난초, 소나무, 대나무, 꽃과 새 등을 곁들이기도 한다. 괴석은 만고불변의 장생물로 단조로운 모란도에 자유분방한 힘을 표출하고 있어 생기를 더해 준다. 모란에 괴석을 첨가하여 부귀장년, 모란에 난을 같이 그려 부귀국향, 모란에 대나무를 같이 그려 부귀평안 등의 화제를 넣기도 한다. 괴석 모란도에서 모란꽃은 여자로 '음', 괴석은 남자로 '양'으로 비유하여 부부화합을 상징하기도 한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조용진 저, 채색화 기법, 미진사, 1992.
 김승희·유마리 저, 한국 미의 재발견-불교 회화, 도서출판 숲, 2005.
 문화재청 누리집 <http://www.cha.go.kr>
 윤영수 저, Koream art book-민화 I, 예경, 2000.



채색의 아름다움



준비물

교사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의 특징이
잘 드러난 참고 작품

학생
활동지, 필기도구

평가 방법

감상문



채색화 탐색하기

교과서 100쪽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를 비교하고, 채색화의 특징 이야기하기

____ 학년 ____ 반 이름 _____



●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의 재료를 비교해 보세요.

● 작품의 표현 특징을 비교해 보세요.

● 색의 표현 방법에 따라 작품이 주는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요?

5-2 붓글씨 표현

중단원의 개관

중단원 '붓글씨 표현'은 이전 3, 4학년에서 배웠던 한글 판본체와 비교하여 한글 궁체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궁체 쓰기와 더불어 자신만의 글씨체를 만들어 쓰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붓글씨는 그 특성상 실용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형 예술이다. 나아가 단순한 예술적 표현에 머물지 않고 쓰는 사람의 인품과 작품을 동일시하는 전통, 즉 정신성을 중요시하는 동양 특유의 예술로 평가 받고 있다. '마음이 바르면 붓도 바르다.' 혹은 '글씨를 배우는 자는 인품을 세우는 일을 귀하게 여기는데, 인품이 선 사람은 필묵 밖에 저절로 밝고 바른 기가 있게 된다.'고 여겨 온 선조들의 예술관은 오늘날 우리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인성 교육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 '궁체 알기' 단원은 판본체와 궁체를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궁체의 특징을 이해하며, 붓글씨를 쓸 때의 바른 자세를 알고, 궁체의 기본 점획 쓰기를 익히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심화 '궁체와 나만의 글씨체로' 단원은 자음과 모음에 따른 궁체의 다양한 구조와 변화를 이해하고 주어진 서체를 써 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 붓글씨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자신만의 개성 있는 글씨체를 만들어 써 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붓글씨가 활용되거나 변화된 사례를 찾아보고 붓글씨를 중심으로 한 생활 속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중단원의 목표

- ★ 궁체의 특징을 이해하고 바른 자세로 기본 점획을 익힌다.
- ★ 자음과 모음에 따른 궁체 자형의 구조와 변화를 알고, 이름과 서체를 어울리게 구성하여 쓴다.
- ★ 붓글씨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나만의 개성 있는 글씨체를 만들어 쓴다.
- ★ 붓글씨가 다양하게 변화되어 활용된 예를 찾아보고, 조형적 아름다움을 감상한다.

중단원의 구성

■ 체험 ▲ 표현 ● 감상

수준	소단원명	교과서 쪽수	지도서 쪽수	소단원의 제재명
기초	궁체 알기	104~106	237~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체 알기 ▲ 궁체의 기본 점획 쓰기 ▲ 궁체로 '우리' 쓰기
심화	궁체와 나만의 글씨체로	107~110	245~2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체 자형의 구조 탐색하기 ▲ 궁체로 '고운 마음' 쓰기 ▲ 나만의 글씨체 만들기 ● 붓글씨의 다양한 모습 감상하기



궁체 알기



소단원의 개관

기초 '궁체 알기' 단원은 이전에 배웠던 판본체와의 비교를 통해 궁체의 특징을 이해하고 기본 점획을 바른 자세로 써 봄으로써 궁체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궁체의 기본 점획은 판본체와 달리 선이 다양한 굵기와 형태로 표현되며, 함께 쓰이는 모음에 따라 점의 위치도 각기 달라 붓글씨의 다양한 멋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단원은 판본체와 비교하며 궁체의 글자 모양을 알아보고, 바른 자세로 궁체의 기본 점획 쓰는 방법을 익힌 후, 자음과 모음의 어울림을 생각하며 서체 '우리'를 써 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궁체의 특징을 이해하고, 한글 서예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계승하려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소단원의 목표

- 궁체의 유래를 알아보고, 판본체와 비교하여 궁체의 글자 모양과 특징을 안다.
- ▲ 바른 자세로 궁체의 기본 점획을 쓰는 법을 익힌다.
- ▲ 자음과 모음의 어울림을 생각하며 '우리'를 궁체로 바르게 쓴다.

수업의 구성

구분	제재명	교과서 쪽수	지도서 쪽수	주요 학습 활동	차시
체험	궁체 알기	104	237~2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체의 유래 알기 • 판본체와 비교하며 궁체의 글자 모양 탐색하기 	6
표현	궁체의 기본 점획 쓰기	105	239~2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붓 잡는 방법과 붓글씨를 쓰는 바른 자세 알기 • 가로획과 세로획을 쓸 때의 붓의 움직임 알기 • 획의 굵기와 모양의 변화를 생각하며 'ㅡ'와 '丨' 쓰기 • 모음의 종류에 따른 점의 위치를 알고 'ㅏ'와 'ㅑ', 'ㅓ'와 'ㅕ' 쓰기 	
	궁체로 '우리' 쓰기	106	241~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음 'ㅇ'과 'ㄹ' 쓰기 • 자음과 모음의 어울림을 생각하며 궁체로 '우리' 쓰기 	

※ 수업의 구성은 학교 상황이나 여건, 학생들의 수준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바랍니다.

학습 평가

■ 체험 ▲ 표현 ● 감상

교육 과정 내용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상	중	하
■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 발견하기	판본체와 비교하며 궁체 글자 모양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판본체와 비교하며 궁체 글자 모양의 구체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판본체와 비교하며 궁체 글자 모양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판본체와 비교하며 궁체 글자 모양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찾을 수 있다
▲ 여러 가지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 표현 과정 등을 탐색하여 표현하기	서예 용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궁체의 표현 방법과 표현 과정을 알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	서예 용구의 사용이 올바르며, 궁체의 표현 방법과 표현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다.	서예 용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궁체의 표현 방법과 표현 과정을 알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	서예 용구를 사용하는 데 미숙하며, 궁체의 표현 방법과 표현 과정을 제한적으로 알고 이를 표현하는 데 서툴다.

5-2 붓글씨 표현

기초 궁체 알기

붓글씨를 쓸 때의 바른 자세를 알고, 궁체의 기본 획을 써 봅시다.

생각하기
서예는 문자의 뜻과 조형미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서예의 조형미는 글자 모양, 글자 상호 간의 비례와 균형 등이 어우러져 표현됩니다. 궁체의 글자 모양을 익혀 써 볼까요?

재미
궁체 알기
★ 판본체와 비교하며 궁체의 글자 모양을 알아봅시다.

▲ 학자 미상(조선) 용어연구(목판본/1449년)

▲ 학자 미상(조선) 육필본(한글 필사본/27.8×20cm/조선 후기)

판본체		궁체	
글자의 모양은 어떤가요?		획의 굵기 변화는 어떤가요?	
글자의 중심은 어디에 있나요?		획의 방향은 어떤가요?	

미술 용어 알기 궁체, 점획 → 용어 알기 120쪽

더하기 활동 궁체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주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조사해 봅시다.

104 5-2. 붓글씨 표현

체험 궁체 알기

교과서 104쪽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체의 유래를 안다. • 판본체와 비교하며 궁체의 글자 모양을 탐색하고 그 특징을 안다.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체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았는가? • 판본체와 비교하여 궁체 글자 모양의 특징을 이해하였는가?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법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판본체와 궁체로 쓰인 참고 자료 도판 • 학생: 필기도구

지도상의 유의점

- 궁체의 유래와 쓰임새에 대해 미리 조사해 보도록 한다.
- 미리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글씨체로 문장을 입력해 보고 다양한 글씨체가 있음을 알게 한다.
- 판본체와 궁체의 글자 모양을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들어가기

1 다양한 서체 알기

- T:** 글씨체(서체)는 글씨를 쓰는 일정한 격식이나 양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컴퓨터에서의 글꼴에 해당해요. 우리가 컴퓨터로 글을 입력할 때 글의 주제나 내용에 따라 다양한 글씨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쓰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글씨체를 즐겨 쓰나요?
- S:** 굴림체요.
- S:** 명조체로 써요.
- S:** 제목을 강조할 때는 진한 고딕체로도 써요.
- S:** 궁서체도 있어요. 붓으로 쓴 글씨처럼 보여요.
- T:** 컴퓨터뿐만 아니라 붓글씨에도 여러 가지 글씨체가 있어요. 3, 4학년 때는 어떤 글씨체를 배웠지요?
- S:** 판본체를 배웠어요.
- T:** 오늘은 판본체와 비교하며 궁체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개하기

1 궁체의 유래 알기

- T:** 궁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 S:** 붓글씨체의 한 종류예요.
- S:** 옛날 궁중에서 쓰던 글씨체인가요?
- T:** 맞아요. 궁체란 '궁중 서체'의 준말로, 주로 궁중의 궁녀들에 의해 만들고 다듬어진 글씨체를 말해요. 그럼 궁체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 S:** 궁중의 문서와 편지를 쓰는 데 많이 사용되었어요.
- T:** 그래요. 상궁이나 기록을 담당하던 관리들이 궁중의 문서나 편지글을 적는 데 주로 쓰면서 하나의 글씨체로 발전했다고 해요.

2 판본체와 궁체 비교하기

- ① 한글 서체에는 판본체와 궁체(정자체 및 흘림체) 등이 있다.
- T:** 그럼 3, 4학년 때 배운 판본체와 궁체를 비교해 보며 궁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두 가지 글씨체를 잘 관찰하여 각각의 글자 모양의 특징을 말해 봅시다.
- T:** 글자의 모양과 전체적인 느낌은 각각 어떤가요?
- S:** 판본체는 글자 모양이 사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 S:** 궁체는 글자의 모양이 다양해요.
- S:** 판본체는 전체적으로 딱딱하고 안정된 느낌이 들어요.
- S:** 궁체는 둥글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 T:** 글자의 중심은 각각 어디에 있나요?

- S:** 판본체는 글자의 중심이 가운데에 있어요.
- S:** 궁체는 글자의 중심이 약간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요.
- T:** 획의 굵기 변화는 어떤가요?
- S:** 판본체는 획의 굵기가 일정해요.
- S:** 궁체는 획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한 획이라도 처음 시작 부분과 획의 가운데 부분, 끝 부분의 굵기가 각각 달라요.
- T:** 그럼 획의 방향은 어떤가요?
- S:** 판본체는 곧은 획과 꺾은 획, 비스듬한 획 등 모든 획의 방향이 수직, 수평, 사선으로 일정해요.
- S:** 궁체는 글자 모양에 따라 획의 방향이 다양하게 쓰여요.
- S:** 궁체의 가로획은 오른쪽이 약간 올라가게 쓰는 것 같아요.
- T:** 획의 마무리는 어떤가요?
- S:** 판본체는 가로획과 세로획의 처음과 끝이 모두 비슷한 모양인데, 궁체의 가로획은 시작보다 끝 부분이 좀 더 굵고 둥글게 마무리되었고, 세로획은 끝이 뾰족하게 끝나요.
- T:** 그럼, 점의 위치는 어떤가요?
- S:** 판본체는 점의 위치가 모음의 중앙에 있는데, 궁체는 글자에 따라 점의 위치가 달라요.
- T:** 네, 다들 잘 알고 있네요. 판본체의 가로획과 세로획은 곧은 획으로 굵기가 일정하고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써요. 그리고 획과 획 사이의 간격도 일정하게 쓰지요.
- T:** 이에 비해 궁체는 모음의 가로획과 세로획을 자음의 폭보다 길게 써서 글자 모양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획의 굵기 변화도 다양해요.

판본체와 궁체 비교하기

글자의 중심

판본체에서는 글자의 중심이 가운데에 있지만, 궁체에서는 글자의 중심이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



획의 굵기와 방향 변화

㉠ 가로획



판본체의 가로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굵기가 일정하지만 궁체의 가로획은 시작보다 끝 부분이 좀 더 굵고 둥글게 마무리된다.

㉡ 세로획

판본체의 세로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굵기가 일정하지만, 궁체의 세로획은 끝 부분이 뾰족하게 끝난다.



㉢ 꺾은 획

판본체의 꺾은 획, 비스듬한 획은 획의 방향이 수직과 수평으로 일정하지만, 궁체의 꺾은 획은 글자의 모양에 따라 방향이 다양하게 쓰인다.



㉣ 비스듬한 획

판본체의 비스듬한 획은 획의 방향이 일정한 사선이지만, 궁체의 비스듬한 획은 글자에 따라 획의 방향이 다양하게 쓰인다.



▶ 정리하기

- ㉠ 지금까지 비교해 본 판본체와 궁체의 특징을 교과서에 직접 적어 본다.
- ㉡ 다음 차시를 예고하고 준비물을 안내한다.
 - 궁체의 기본 점획 써 보기 활동에 대해 예고한다.
 - 붓글씨 용구를 빠짐없이 준비해 오도록 지도한다.

궁체의 기본 점획 쓰기

★ 붓글씨 쓸 때의 바른 자세를 익히고, 궁체의 기본 획으로 'ㄴ', '丨'를 써 봅시다.

처음 획을 시작할 때(●)는 붓끝으로 가볍게 대어 시작한다. 붓 끝으로 쭉여 안쪽으로 틀리면서 마무리한다(○).

손바닥 안쪽을 동그랗게 만든다.

손바닥 힘은 빼고 손가락 끝에 힘을 준다.

가로획은 시작은 날렵하게 하고, 오른쪽이 약간 올라가게 쓴다.

세로획은 붓을 대는 방향과 굵기의 변화에 유의하여 쓴다.

★ 다양한 모음에서 점획의 위치와 형태를 살펴 바르게 써 봅시다.

세로획의 중간보다 약간 아랫 부분에 접필한다. 붓을 가볍게 대었다가 오른쪽 아래로 방향을 약간 내리면서 동글게 마무리한다.

힘 있게 눌러 시작하다가 추어 올리듯 가볍게 그으며 붓을 댈다. 세로획의 중간쯤에 접필한다.

비스듬히 붓을 대고 시작하여 곧바로 수직으로 활게 내리 굿는다. 가로획의 중간쯤에 접필한다.

가로획의 중간보다 약간 오른쪽 부분에 접필한다. 비스듬히 붓을 대고 시작하여 곧바로 수직으로 내리굽다가 가볍게 마무리하며 붓을 댈다.

궁체 알기 105

표현 궁체의 기본 점획 쓰기

교과서 105쪽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붓글씨 쓸 때의 바른 자세를 익혀 궁체의 기본 획 'ㄴ'과 '丨'를 바르게 쓴다. • 모음에서 점의 위치와 형태를 살펴 바르게 쓴다.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붓글씨 쓸 때의 바른 자세를 익혀 궁체의 기본 획 'ㄴ'과 '丨'를 바르게 쓰는가? • 모음에서 점의 위치와 형태를 알고 이를 바르게 쓸 수 있는가?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기 평가, 관찰법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서예 도구 일체, 수행 평가 활동지 • 학생: 붓, 베틀, 먹물, 화선지, 종이 받침, 물통, 서진

지도상의 유의점

- 붓글씨 쓸 때의 바른 자세를 정확히 알고 글씨를 쓸 때에는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 붓글씨를 쓸 때는 바른 자세와 더불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정신을 가다듬어 집중해서 써야 하는데, 이는

- 글씨를 바르게 쓰는 가운데 인격도 함께 수양한다는 우리 선조들의 예술관에서 비롯된 생각임을 알도록 한다.
- 전시 수업에서 탐색한 궁체의 특징을 잘 살려 기본 점획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기본 모음에서의 점의 위치와 형태의 변화를 확인하고 각각의 차이를 잘 살려 쓰도록 지도한다.

교수·학습 과정

▶ 직접 교수법 적용

문제 인식

- 전시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궁체의 특징을 이야기한다.
- 학습 문제 인식하기: 궁체의 기본 점획을 쓴다.

설명 및 시범

- 붓글씨 쓸 때의 바른 자세와 집필법 익히기
- 붓글씨 쓸 때의 바른 자세를 생각하며 자세를 바르게 한다.
- 붓을 잡을 때는 손바닥 안쪽을 동그랗게 만들어 붓대의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을 잡는다. 넷째 손가락은 붓대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고 새끼손가락은 넷째 손가락에 가볍게 붙여 붓대가 지면과 수직이 되게 힘을 조절한다.
- 너무 힘을 주거나 붓을 잘못 잡으면 손과 팔이 경직되어 피로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손바닥의 힘은 빼고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쓴다.
- 궁체의 기본 획 'ㄴ'과 '丨' 쓰기
- ㉠ 기본 획 'ㄴ' 쓰기
 - 획의 시작은 45° 방향으로 힘 있게 눌러 입필한다.
 - 오른쪽으로 붓의 방향을 살짝 바꾸어 점차 힘을 빼면서 날렵하게 굿되 오른쪽이 살짝 올라가게 쓴다.
 - 가운데 부분을 지나면서부터 속도를 줄이고 점차 굽어지게 굿는다.
 - 잠깐 머무는 듯하면서 힘 있게 눌러 서서히 왼쪽으로 돌려 거둔다. 이때, 끝의 마무리 단계에서 누른 부분이 처지거나 둔하지 않으면서 힘이 멎쳐 있도록 연습하게 한다.
- ㉡ 기본 획 '丨' 쓰기
 - 'ㄴ'와 마찬가지로, 획의 시작을 45° 방향으로 부드럽게 하면서도 힘 있게 눌러 입필한다. 이때, 머릿속으로는 방향을 수직으로 바꾸어 내리굽을 수 있는 준비를 한다.
 - 오른쪽 머리 뒷부분이 모가 나거나 튀어나오지 않도록 시작 부분과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한다.

•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와 굵기를 유지하며 수직으로 내려 긁는다.

• 끝 부분에서 서서히 힘을 빼고 붓을 들기 시작하여 살짝 왼쪽 방향으로 구부리듯이 뽑으며 뾰족하게 마무리한다. 이때, 끝의 가는 부분이 너무 길거나 둥글게 휘지 않게 주의한다.

● 궁체의 기본 점획 쓰기

㉠ ‘丨’에 쓰이는 점을 써 본다.

• 점의 위치는 판본체와 달리, ‘丨’획의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에 가볍게 점필한다.

• 붓을 가볍고 가늘게 대었다가 갑자기 힘을 주어 누르는 기분으로 제자리에서 문쳐 돌리듯 필압을 가한다.

• 오른쪽 아래로 방향을 약간 내리면서 왼쪽으로 돌려 ‘丨’ 획의 끝 부분 마무리와 같은 방법으로 둥글게 마무리한다.

• ‘丨’도 같은 방법으로 쓸 수 있다.

㉡ ‘㇇’에 쓰이는 점을 써 본다.

• 점의 위치는 ‘丨’획의 중간쯤에 쓴다.

• 시작 부분은 45° 방향으로 가볍게 눌러 입필하고, 아랫부분이 둥글게 되도록 한다.

• 가볍게 붓끝을 추어올리듯 힘을 빼며 가늘게 뽑아 ‘㇇’ 획에 붙인다.

㉢ ‘㇈’에 쓰이는 점

• 점을 ‘丨’ 획 중간 위치에 찍는다.

• 비스듬히 붓을 대었다가 곧바로 수직으로 짧게 내리 긁는다.

• ‘丨’ 획에 점필할 때 너무 굵지 않게 한다.

• ‘㇈’도 같은 방법으로 쓸 수 있지만, 오른쪽 점을 더 곧고 길게 내리긁는다.

㉣ ‘㇉’에 쓰이는 점을 써 본다.

• 내리긁는 획을 ‘丨’ 획 위 자음의 오른쪽 축과 맞춘다.

• ‘丨’ 획에 가볍고 가늘게 점필한다. 이때, 오른쪽 뒷머리가 살짝 보이는 느낌으로 쓰면 생동감 있게 표현된다.

• 수직으로 내리긁다가 가늘게 마무리하며 붓을 떼다.

• ‘㇉’도 같은 방법으로 쓸 수 있지만, 왼쪽 획은 바깥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오른쪽 획은 더 곧고 길게 내리긁는다.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 정도 확인하기

• 질의응답을 통해 붓글씨 쓸 때의 바른 자세를 확인한다.

• 질의응답을 통해 궁체의 기본 점획 쓰는 방법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한다.

연습 활동

● 바른 자세로 궁체의 기본 점획 쓰는 연습하기

• 붓 잡는 방법을 익혀 바른 자세로 쓰는 연습을 한다.

• 교과서 내용을 참고하여 궁체의 기본 획 ‘丨’과 ‘丨’를 써 본다.

• 다양한 모음에서 점획의 위치와 형태를 살펴 바르게 쓰는 연습을 한다.

작품 제작

● 궁체의 기본 획 ‘丨’과 ‘丨’ 쓰기

● 점획의 위치와 형태를 살펴 ‘丨’와 ‘丨’, ‘㇈’과 ‘㇉’ 쓰기

정리 및 발전

● 재료와 용구 정리하기

• 붓은 먹이 마르기 전에 찬물에 씻어서 털을 가지런히 정돈한 뒤 붓말이개에 싸 둔다.

• 책상 주변이나 옷에 먹물이 튀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용구들을 잘 챙겨 정돈한다.

점필법의 종류

단구법(單鉤法)

작고 가는 글씨를 쓸 때의 붓 잡는 방법으로, 붓대의 중간보다 약간 아랫부분을 잡는다. 엄지와 집게손가락 사이에 붓을 쥐고 긴 손가락으로 받쳐 주며 나머지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댄다.



단구법

쌍구법(雙鉤法)

보통 글씨나 큰 글씨를 쓸 때의 붓 잡는 방법이다. 집게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을 나란히 한 후, 손가락 마디를 꺾어 붓의 오른쪽 위에 대고, 엄지는 붓의 왼쪽 아래를 힘 있게 잡은 후 약손가락은 안으로부터 받친다.



쌍구법

발등법(發鎧法 / 五指法)

큰 글씨를 쓸 때의 붓 잡는 방법이다. 엄지와 집게손가락의 마디를 꺾어서 단단히 붓대를 잡은 다음 가운데손가락을 집게손가락에 나란히 대고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은 붓대의 안쪽에 댄다. 이때, 다섯 손가락의 마디는 모두 꺾어야 하며 엄지와 집게손가락이 만드는 공간을 가장 크게 넓혀 원이 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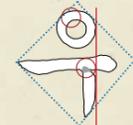
발등법(오지법)

여기서 잠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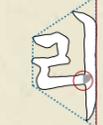


궁체로 '우리' 쓰기

★ 자음 'ㅇ'과 'ㄹ' 쓰는 법을 익히고, 자음과 모음의 어울림을 생각하며 '우리'를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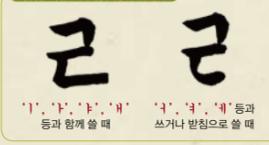
'ㅇ'의 오른쪽 끝과 'ㄹ'의 내리긁는 획을 맞춘다.



'ㅇ'의 한 끝을 'ㄹ'의 꼭 붙여 쓴다.



'ㅇ'은 이렇게 써요



'ㄹ'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요



1. **재미** 궁체와 판본체의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2. **표현** 궁체의 기본 점획을 쓰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3. **재미** 내가 쓴 궁체에서 잘된 부분과 수정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106 5-2 붓글씨 표현



표현 궁체로 '우리' 쓰기

교과서 106쪽

수업 목표	• 자음과 모음의 어울림을 생각하며 궁체로 '우리'를 바르고 균형 있게 쓴다.
평가 기준	• 자음과 모음의 어울림을 생각하며 궁체로 '우리'를 바르고 균형 있게 썼는가?
평가 방법	• 실기 평가, 관찰법
준비물	• 교사: 서예 도구 일체, 수행 평가 활동지 • 학생: 붓, 베틀, 먹물, 화선지, 종이 받침, 물통, 서진



지도상의 유의점

- 전시에 학습한 궁체의 기본 점획을 잘 응용하여 자음과 모음의 어울림을 생각하며 균형 있고 아름답게 써 보도록 한다.
- 붓글씨를 시작하기 전에 재료와 용구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여 지난 시간 뒷정리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교수 · 학습 과정

▶ 들어가기

1 다양한 서체 알기

T: 궁체의 기본 획과 점의 특징에 대해 말해 볼까요?

S: 궁체는 획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한 획이라도 처음 시작 부분과 획의 가운데 부분, 끝 부분의 굵기를 각각 다르게 써요.

S: 모음의 종류에 따라 점의 형태와 쓰는 방법도 약간씩 달라져요.

T: 그럼 오늘은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살려 바른 자세로 'ㅇ'과 'ㄹ'을 쓰고 나서 '우리'를 써 볼까요?

▶ 전개하기

1 자음 'ㅇ'과 'ㄹ' 쓰기

㉠ 'ㅇ'을 써 본다.

• 'ㅇ'은 한 번에 쓰거나 두 번에 나누어 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다.

• 한 번에 쓸 때는 붓을 가볍게 대어 수직으로 세운 뒤 왼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속 고르고 둥글게 돌린다.

• 원 전체의 굵기가 일정하게 쓰고 마지막 맞닿는 부분에서도 튀어나오지 않게 마무리한다.

• 두 번에 나누어 쓸 때에는 붓을 대고 펜 자국이 없도록 매끄럽게 써야 한다.

• 왼쪽 위부터 시작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되, 반 바퀴보다 훨씬 많이 올라온 곳에서 붓을 가늘게 뽑는다.

• 나머지 절반은 시계 방향으로 처음 시작된 획의 첫 부분에 충분히 겹치도록 힘 있게 입필한다.

• 겹치고 펜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둥글게 돌리면서 붓을 거둔다.

㉡ 'ㄹ'을 써 본다.

• 'ㄹ'은 함께 쓰는 모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한다.

• '丨', '丨', '丨' 등과 함께 쓸 때는 오른쪽 세로획에 맞닿도록 점필한다.

• 'ㅇ', 'ㅇ', 'ㄹ', 'ㄹ' 등과 함께 쓸 때는 마지막 끝 획을 짧고 둥글게 마무리한다.

2 '우리' 쓰기

㉠ 자음 'ㅇ'과 모음 '우'의 어울림을 생각하며 '우'를 써 본다.

㉡ 자음 'ㄹ'과 모음 '리'의 어울림을 생각하며 '리'를 써 본다.

㉢ '우'와 '리'의 위치가 서로 어울리는지 살펴 가며 균형

있게 '우리'를 쓴다.

정리하기

- ㉠ 서로의 작품에서 잘된 점과 보완할 점을 이야기한다.
- ㉡ 마무리 활동으로 단원 내용을 정리한다.

스스로 평가하기

- 궁체와 판본체의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 ➔ 판본체는 전체적으로 사각형을 이루어 딱딱하고 안정된 느낌이 든다. 글자의 중심이 가운데에 있으며 획의 굵기가 일정하고 곧은 획, 꺾은 획, 비스듬한 획 등 모든 획의 방향이 수직, 수평, 사선으로 일정하다. 점은 가로획, 세로획의 중간에 위치한다.
 - ➔ 궁체는 글자의 모양이 다양하여 전체적으로 둥글고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글자의 중심이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며, 획의 굵기와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 가로획은 오른쪽이 약간 올라가게 쓴다.
- 궁체의 기본 점획 쓰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 ➔ 'ㅏ', 'ㅑ', 'ㅓ', 'ㅕ'의 점획 쓰는 법을 떠올리며 이야기한다.
- 내가 쓴 궁체에서 잘 된 부분과 수정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 ➔ 자신의 작품에서 자음과 모음이 잘 어울리는지, 두 글자의 위치가 서로 잘 어울리는지 살펴가며 이야기한다.

참고 자료

가. 궁체의 유래와 특징

1446년(세종 28년) 훈민정음이 반포된 이후 궁중에서 궁녀들을 중심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발전한 서체라 하여 궁중 서체, 즉 '궁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한글 창제 직후 한글 판본체가 읽기는 쉽지만 쓰는 데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차츰 쓰기 편하고 빠른 필사체로 변화, 발전된 것이 궁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처음에는 한자의 서법을 응용하여 형태가 만들어지다가 차츰 독특한 서체로 발전하면서 궁체만의 고유한 개성과 특징을 형성하였다. 즉, 궁체에서 느낄 수 있는 여성적인 유려함, 곡선적인 울동감, 단아한 균형감은 판본체나 한자 서예와 크게 나뉘는 특징으로 차츰 궁녀뿐만 아니라 일반 부녀자층 사이에서도 유행하게 되어 내서(內書)라고도 불렸다.

궁체의 서체로는 정서체(正書)와 흘림체(반흘림·진흘림)가 있으며, 형식은 등서체(騰書體)와 서한체(書翰體)로

나뉜다. 정서체는 한자 서예의 해서(楷書), 흘림체는 행·초서(行·草書)에 해당한다. 당초에는 글씨의 틀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채 한자의 서풍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차츰 한글 특유의 글자 모양에 알맞은 독자적인 서체로 발전하면서 정서체에서는 새로운 틀이 생기고 흘림체에서는 독특한 시각미를 갖춘 서체가 형성되었다. 정서체는 쓰는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이 치밀하고 자형은 안정된 형태를 취하여 정중하고 차분한 맛이 있으며, 흘림체는 운필 과정에서 강약과 완급의 변화에 따라 정확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여 유려하고도 활기차며 다양한 시각미가 나타난다.

또한, 흘림체는 반흘림과 진흘림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반흘림은 흘려 쓴 정도가 덜한 것을 말하고, 진흘림은 점획뿐만 아니라 글자와 글자끼리도 연결지어 쓴 것으로 필속이 매우 빨라 유창한 느낌이 나며, 주로 편지글에 많이 남아 있다. 한편 등서체는 정돈되고 규칙적이며 의식적인 데 비해, 서한체는 불규칙적이고 자유분방하며 장식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정조 시대에는 시조, 가사, 한글 소설 등 국문학의 융성으로 한글 필사가 늘어나면서 궁체의 쓰임새도 확대되었고, 그와 함께 형식에 있어서도 절정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정조는 친히 궁체로 편지글을 쓰기도 하였다. 순조와 고종 때에도 궁체는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는데, 궁중에서 교서나 봉서 등을 전문으로 쓰는 일을 담당하던 서사상궁(書寫尙宮) 중에서 선발된 지밀나인(至密內人)들의 편지글씨는 선이 곧고 맑으며 단정하고 아담한 특징을 지닌 궁체의 세련미의 극치를 보여 준다. 순조비 순원 왕후, 순조의 딸 덕원 공주의 글씨와 상궁 최장희의 '신정 왕후전', 상궁 서희순의 '고종 황제전' 등은 아름다운 궁체로서 높이 평가 받고 있으며, 특히 조대비전의 서기였던 이씨의 글씨는 궁체의 백미로 일컬어지고 있다. 궁체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즐겨 쓰는 대표적인 한글 서체로서, 소중한 아름다운 전통의 맥을 유지하고 있다.



남계연담(한글 부분/조선 시대) 선조의 편지글(부분/1603년)

참고 문헌

- 김진원 저, 길잡이 한글 서예, 학일출판사, 1993.
- 김충현 저, 국한 서예, 시청각교육사, 1970.

기초 궁체 알기

준비물

교사
궁체 참고 자료

학생

활동지, 서예 도구,
가위, 풀

평가 방법

실기 평가,
포트폴리오법,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궁체로 '우리' 쓰기

교과서 106쪽

'우리' 쓰기

_____학년 _____반 이름 _____

- 내가 쓴 궁체의 '우리' 작품을 잘라 붙이고,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그 내용을 적어 봅시다.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궁체와 나만의 글씨체로



소단원의 개관

심화 '궁체와 나만의 글씨체로' 단원은 5학년에서 익힌 궁체의 기본 점획을 기초로 하여 궁체 자형의 구조와 변화를 이해하고 바르게 쓰며,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개성 있는 글씨체를 만들어 써 봄으로써 전통 붓글씨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활용 가능성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단원에서는 궁체 자형의 구조 및 자음과 모음에 따른 자형의 다양한 변화를 이해하고 주어진 서체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작은 글씨로 써 보는 활동을 한다. 또한 전통 붓글씨의 특성을 살리면서 개성 있고 아름다운 자신만의 글씨체를 새롭게 만들어 써 보고, 붓글씨의 다양한 모습과 쓰임을 살펴봄으로써 생활 속에서 붓글씨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즐기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단원의 목표

- 궁체의 자형과 구조를 이해하고, 작은 글씨를 쓰는 자세를 익힌다.
- ▲ 자형의 구조를 생각하며 궁체로 '고운 마음'을 바르게 쓴다.
- ▲ 전통 붓글씨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나만의 개성 있는 글씨체를 만들어 쓴다.
- 붓글씨의 다양한 변화와 아름다움을 살펴보고, 생활 속에서 붓글씨가 활용된 사례를 찾아 이야기한다.

수업의 구성

구분	제재명	교과서 쪽수	지도서 쪽수	주요 학습 활동	차시
체험	궁체 자형의 구조 탐색하기	107	245~2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체 자형의 구조와 모음에 따른 자음의 형태 변화 알기 • 작은 글씨를 쓰는 자세 알기 • 궁체로 내 이름 써 보기 	6
표현	궁체로 '고운 마음' 쓰기	108	247~2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형과 획의 방향, 글자의 중심 알기 • 자형의 구조와 변화를 생각하며 궁체로 '고운 마음' 쓰기 	
	나만의 글씨체 만들기	109	249~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붓글씨를 바탕으로 새로운 글씨체 만드는 요령 알기 • 나만의 개성 있는 글씨체 만들어 쓰기 	
감상	붓글씨의 다양한 모습 감상하기	110	251~2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에서 붓글씨가 변화되어 활용된 예 찾아보기 • 궁체와 다양한 붓글씨의 아름다움 감상하기 	

* 수업의 구성은 학교 상황이나 여건, 학생들의 수준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평가

■ 체험 ▲ 표현 ● 감상

교육 과정 내용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상	중	하
■ 자연물과 인공물을 다양한 감각으로 탐색하기	궁체의 자형에 대해 알고, 바른 자세로 작은 글자를 쓸 수 있다.	궁체의 자형에 대해 정확히 알고, 바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작은 글자를 쓸 수 있다.	궁체의 자형에 대해 알고, 바른 자세로 작은 글자를 쓸 수 있다.	궁체의 자형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 바른 자세로 작은 글자를 쓰는 데 서툴다.
▲ 재료와 용구에 따른 표현 방법을 탐색하여 표현하기	궁체의 기본 필법을 이해하고 '고운 마음'을 쓰며, 나만의 글씨체를 만들 수 있다.	궁체의 기본 필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고운 마음'을 바르게 쓰며, 나만의 개성 있는 글씨체를 만들 수 있다.	궁체의 기본 필법을 이해하고 '고운 마음'을 쓰며, 나만의 글씨체를 만들 수 있다.	궁체의 기본 필법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고운 마음'을 쓰며, 나만의 글씨체를 만들어 쓰는 데 미흡하다.
● 주변에서 전통 미술 찾아보기	생활 주변에서 붓글씨의 다양한 모습을 찾아 그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다.	생활 주변에서 붓글씨의 다양한 모습을 찾아 그 특징을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생활 주변에서 붓글씨의 다양한 모습을 찾아 그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다.	생활 주변에서 붓글씨의 다양한 모습을 찾아 그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미흡하다.

5-2 붓글씨 표현

궁체와 나만의 글씨체로

글씨체의 다양한 구조를 이해하고 아름답게 써 봅시다.

붓글씨는 단순히 아름답게 쓴다는 것을 넘어 정신 수양의 한 방법으로도 인정받아 온 예술입니다. 궁체와 개성 있는 나만의 글씨체로 서예의 맛을 느껴 볼까요?

궁체 자형의 구조 탐색하기

★ 작품 속에서 자음이 함께 쓰는 모음이나 위치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찾아봅시다.

이름과 같은 작은 글씨 쓰는 방법

한 손을 받침대 삼아 그 위에 붓을 잡은 다른 손을 올려놓으면 안정감 있게 쓸 수 있다.

- 'ㄱ'은 'ㅏ', 'ㅣ', 'ㅓ'와 쓸 때 어떻게 변하나요?
- 'ㄴ'은 'ㅓ', 'ㅗ'와 쓸 때 어떻게 변하나요?
- 'ㅇ'은 모음에 따라 형태가 어떻게 변하나요?

활동지 165~166쪽의 자음과 모음을 활용하여 내 이름의 자형을 써 봅시다.

이승용·양기 | 자형, 자간 → 용이·양기 121쪽

궁체와 나만의 글씨체로 107

체험 궁체 자형의 구조 탐색하기

교과서 107쪽

수업 목표	• 궁체의 자형과 구조를 이해하고, 작은 글씨를 쓰는 바른 자세를 안다.
평가 기준	• 궁체 자형의 구조와 변화 및 작은 글씨를 쓰는 바른 자세를 이해하였는가?
평가 방법	• 실기 평가, 관찰법
준비물	• 교사: 서예 도구 일체 • 학생: 붓, 베풀, 먹물, 화선지, 종이 받침, 물통, 서진

지도상의 유의점

- 궁체 자형의 구조와 모음에 따른 자음의 변화를 살펴보고, 자신의 이름을 자형에 맞추어 써 봄으로써 궁체의 자형(자음과 모음이 결합한 글자의 모양)을 이해하게 한다.
- 자신의 이름 등 교과서 예시 작품에 나와 있지 않은 글자를 쓸 때에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부록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 자형의 구조 등 글자의 형태뿐만 아니라 5학년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용필 방법을 상기시킨 후 쓰도록 지도한다.
- 차분한 마음과 바른 자세는 아름답고 바른 글씨를 쓰는 데 기본이 되므로 이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한다.
- 자형의 다양한 구조 변화가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러한 다양성이 궁체의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추구하는 데 밑바탕이 됨을 이해하게 한다.

교수·학습 과정

▶ 들어가기

1 궁체 기본 획의 필법 상기하기

- T: 5학년 때 배웠던 궁체에서, 기본 획을 어떻게 썼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 S: 'ㄷ'와 'ㅣ'는 45° 방향으로 힘 있게 눌러 시작해요.
- S: 'ㄷ'는 오른쪽이 살짝 올라가게 쓰고, 'ㅣ'는 수직으로 내리긋다가 끝에서 뾰족하게 마무리해요.
- T: 점은 어떻게 쓰나요?
- S: 모음의 종류에 따라 점의 위치나 모양이 좀 달라요.
- T: 그래요. 궁체는 같은 자음이라도 함께 쓰는 모음에 따라 각각 다른 모양으로 변하기도 해요. 오늘은 자음과 모음에 따른 궁체 자형의 구조와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내 이름의 자형을 작은 글씨로 써 볼 거예요.

▶ 전개하기

1 자음과 모음에 따른 궁체 자형의 구조와 변화

- ㉠ 궁체는 판본체와 비교하면 삼각형, 마름모형, 사다리형 등 자형이 다양하다.
- ㉡ 교과서 107쪽의 궁체 예시 작품 '가을이 오면'에 나오는 여러 글자의 관찰을 통해 궁체 자형의 구조를 탐색하고, 그중에서 'ㄱ'과 'ㄴ', 'ㅓ'이 들어가는 글자들을 찾아 각각의 자형을 비교함으로써 같은 자음이라도 함께 쓰는 모음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 ㉢ 'ㄱ'의 변화를 살펴본다.
- 모음 'ㅣ, ㅏ, ㅓ, ㅗ, ㅜ, ㅠ, ㅡ, ㅝ' 등과 함께 쓸 때는 예각으로 쓰고 두 획의 연결 부분이 너무 둔하지 않게 쓴다.
 - 모음 'ㅓ, ㅗ'와 함께 쓸 때는 반듯하게 직각으로 쓴다. 받침으로 쓸 때에도 직각으로 내리긋되 세로획을 가로획보다 약간 짧게 쓴다.



• 모음 ‘ㅡ, ㅏ, ㅑ’와 함께 쓸 때는 약간 둥글게 쓰며 가로획과 내리긋는 획의 연결 부분은 특별히 굽기의 변화를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끝 부분은 가늘고 둥글게 왼쪽 방향으로 살짝 돌리며 마무리하면서 모음에 가볍게 접필한다.

구

• ‘ㅋ’도 같은 요령으로 쓴다.

카 코

㉔ ‘ㄴ’의 변화를 살펴본다.

• 모음 ‘ㅣ, ㅓ, ㅕ, ㅗ’ 등과 함께 쓸 때는 첫머리의 살짝 경사진 각도를 제외하면, 내리긋는 획과 꺾이는 부분을 거의 직각에 가깝게 쓰며 모음까지 연결하여 접필한다.

나

• 모음 ‘ㅓ, ㅕ, ㅗ’ 등과 함께 쓸 때는 꺾이는 부분을 직각으로 쓰되 바깥 면은 각이 지지 않도록 둥글게 굴리면서 마지막 획을 짧고 둥글게 마무리하고 모음에 접필하지 않는다. 받침으로 쓸 때에도 이 형태로 약간 납작하게 쓴다.

너

• 모음 ‘ㅡ, ㅏ, ㅑ, ㅓ, ㅕ’와 함께 쓸 때는 위의 경우(‘ㅣ, ㅓ, ㅕ’와 함께 쓰거나 받침으로 쓸 경우)보다 꺾이는 가로획을 약간 길게 쓴다.

누

• ‘ㄹ’과 ‘ㄷ’, ‘ㅌ’도 같은 요령으로 응용하여 쓴다.

라 로

㉕ ‘ㅅ’의 변화를 살펴본다.

• 모음 ‘ㅣ, ㅓ, ㅕ’ 등과 함께 쓸 때는 ‘ㅅ’의 두 획이 거의 직각에 가깝게 쓴다.

사

• 모음 ‘ㅡ, ㅏ, ㅑ, ㅓ, ㅕ’와 함께 쓸 때는 ‘ㅅ’의 두 획의 폭을 직각보다 넓게 벌려 쓴다.

소

• 모음 ‘ㅓ, ㅕ, ㅗ’ 등과 함께 쓸 때는 ‘ㅅ’의 두 획이 예각을 이루도록 좁게 쓴다. 이때, 두 번째 획은 수직에 가깝게 내리긋는다.

서

• ‘ㅈ’과 ‘ㅊ’도 같은 요령으로 쓴다.

자

• ‘ㅁ, ㅂ, ㅅ, ㅎ’은 모음에 따른 변화가 없다.

2 작은 글씨를 쓰는 바른 자세 알기

- 기본적으로 양팔의 팔꿈치를 책상에 대고 쓴다.
- 한 손을 받침대 삼아 그 위에 붓을 잡은 다른 손을 가볍게 올려놓고 쓴다(침완법).
- 작은 글자를 쓸 때에는 팔의 큰 움직임보다 손가락의 움직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쓴다.
- 붓은 붓대의 중간보다 아래쪽으로 잡는다.
- 붓은 연필을 쥐는 느낌으로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잡고, 나머지 손가락은 안쪽으로 접어 붓을 받치고 쓴다(단구법). 붓대는 수직을 유지하며 쓴다.

완법(腕法)

침완법(枕腕法)

이름, 낙관 등 작은 글씨를 쓸 때의 팔의 위치와 자세이다. 한쪽 손등 위에 붓을 잡은 다른 손을 가볍게 올려 받쳐놓고 쓴다. 팔의 힘이 붓끝까지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손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 작은 글씨를 쓸 때 적당하다. 붓글씨 자세에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에 침완법으로 연습하고, 이후 현완법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제완법(提腕法)

작은 글씨와 보통 글씨를 쓸 때의 팔의 위치와 자세이다. 한쪽 팔을 책상 위에 올려 종이를 누른 다음 다른 쪽 팔꿈치를 책상에 대고 팔목 부분만을 움직여 쓴다. 크고 힘 있는 글씨를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현완법(懸腕法)

큰 글씨를 쓸 때의 팔의 위치와 자세이다. 한쪽 팔을 책상 위에 올려 종이를 누른 다음 글씨 쓰는 팔은 책상에 대지 않고 팔꿈치가 책상과 평행이 되도록 들어 올려 쓴다. 자연히 붓과 팔은 직각을 이룬다. 쌍구법(雙鉤法) 또는 발등법(發硯法)과 함께 사용된다. 팔과 팔목, 손가락이 모두 자유롭게 움직여지므로 힘이 붓끝에 잘 도달할 수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완법이라 할 수 있다. 양어깨 모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한다.

3 내 이름의 자형을 알고 궁체로 써 보기

- 교과서 107쪽 이름 쓰는 난에 연필로 자신의 이름을 써 보고 모음이 가로획인지 세로획인지, 가로획과 세로획으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인지 구별하여 살펴본다.
- 부록 165~166쪽을 참고하여 내 이름의 자형을 알아본다. 특히 모음에 따른 자음의 형태를 잘 살펴본다.
- 받침이 있는 글자는 모음의 세로획이 짧아지고, 획수와 관계없이 각 글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한다.
- 작은 글씨를 쓰는 바른 자세로 내 이름의 자형을 붓으로 써 본다.

정리하기

- ① 이름의 자형이 바르고 균형 있게 쓰였는지 살펴본다.
- ② 재료와 용구를 바르게 정리한다.
 - 버루에 남은 먹물은 붓으로 훑어 연습한 종이로 닦은 후 물통에 씻어 낸다.
 - 붓은 먹이 마르기 전에 찬물에 씻어서 털을 가지런히 정돈한 뒤 붓말이기에 싸 둔다.

궁체로 '고운 마음' 쓰기 준비물 145쪽

★ 궁체 자형의 구조와 변화를 생각하며, '고운 마음'을 써 봅시다.

자형과 획의 방향, 글자의 중심 알기

'ㅁ'의 밑변과 'ㅓ'의 점의 높이가 같도록 쓴다.

'ㅓ'의 내리긋는 획과 'ㅕ'의 점이 평행이 되게 쓴다.

'ㅇ'과 받침 'ㅁ'의 폭이 같게 쓴다.

'ㅇ'의 오른쪽과 'ㅓ'의 내리긋는 획이 일치선이 되도록 쓴다.

'ㄱ'은 이렇게 써 보아요

필선, 정획의 위치, 방향, 굵기의 변화, 붙여 쓰는 위치에 유의해서 쓴다.

108 5-2 붓글씨 표현

표현 궁체로 '고운 마음' 쓰기 교과서 108쪽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ㅁ'을 쓰는 방법과 글자의 중심을 이해한다. • 자형의 구조와 변화를 생각하며 '고운 마음'을 쓴다.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ㅁ'을 쓰는 방법과 글자의 중심을 이해하였는가? • '고운 마음'을 궁체로 바르게 썼는가?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기 평가, 관찰법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서예 도구 일체, 수행 평가 활동지 • 학생: 붓, 버루, 먹물, 화선지, 종이 받침, 물통, 서진

표현 궁체로 '고운 마음' 쓰기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ㅁ'을 쓰는 방법과 글자의 중심을 이해한다. • 자형의 구조와 변화를 생각하며 '고운 마음'을 쓴다.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ㅁ'을 쓰는 방법과 글자의 중심을 이해하였는가? • '고운 마음'을 궁체로 바르게 썼는가?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기 평가, 관찰법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서예 도구 일체, 수행 평가 활동지 • 학생: 붓, 버루, 먹물, 화선지, 종이 받침, 물통, 서진

지도상의 유의점

- 'ㅁ'의 필법을 알고 자형의 구조와 변화, 글자의 중심을 생각하며 서제를 쓰도록 지도한다.
- 궁체는 삼각형, 마름모형, 사다리형 등 판본체에 비해 자형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한다.
- 글자의 중심과 글자 간의 간격을 고려하여 세로쓰기를

경험하게 한다.

- 전체적인 균형을 염두에 두고 서제와 이름의 크기를 고려하여 쓰도록 지도한다.

교수·학습 과정

▶ 들어가기

- 1 학습 내용 확인하기
 - T: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궁체의 기본 점획과 자형을 바탕으로 '고운 마음'을 써 볼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붓글씨를 쓸 때 교훈적이고 아름다운 내용의 글을 선택하여 썼어요. 붓글씨를 통해 올바른 마음과 정신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지요. 우리도 '고운 마음'을 쓰면서 정말로 고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볼까요?
 - T: '고운 마음'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자음과 모음 쓰는 방법을 알아야 할까요?
 - S: 자음으로는 'ㄱ', 'ㄴ', 'ㅇ', 모음으로는 'ㅏ', 'ㅑ', 'ㅓ', 'ㅕ'를 쓰는 방법을 익혀야 해요.

2 재료와 용구 배치하기

- T: 재료와 용구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적절하게 배치해 봅시다.
- S: 버루는 깊이 파인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게 놓고, 아랫쪽에 붓을 걸쳐 놓을 수 있도록 책상의 윗부분에 놓으면 쓰기 편리해요.
- S: 서진을 편한 위치에 올려 화선지를 고정해요.

▶ 전개하기

- 1 서제의 필법 탐색하기
 - ㉠ 교과서 108쪽 하단 왼쪽의 그림을 보며 서제의 자형과 획의 방향, 글자의 중심 등 필법의 요소를 탐색한다.
 - '고'는 'ㅇ'의 점이 전체적으로 기울지 않도록 직각으로 내리긋어서 'ㅓ'의 내리긋는 획과 평행을 이룬다.
 - '운'은 'ㅇ'의 오른쪽 끝과 'ㅓ'의 내리긋는 획을 일직선상에 맞춰 전체적인 균형과 글자의 중심을 유지한다.
 - '마'는 'ㅁ'의 밑변과 'ㅓ'의 점의 높이가 같고, 'ㅁ'의 안쪽 폭과 'ㅁ', 'ㅓ' 사이의 폭이 같다.
 - '음'은 'ㅇ'과 받침 'ㅁ'의 폭이 같다.
 - ㉡ 교과서 108쪽의 학생 작품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 T: 서제의 느낌이 어떤가요?
 - S: '운'에서 'ㅓ'의 세로획이 가운데로 가 있어 글자의 중심에서 벗어났고 접필 부분이 무거워요.

- S: '음'에서 'o'의 폭이 받침 'ㅁ'에 비해 다소 좁아요.
- S: 글자끼리 상하좌우의 균형이 잘 맞는 편이에요.
- T: 서예에서 글자의 배치 방법을 배자라고 해요. 서제와 이름을 어울리게 쓰기 위해 배자를 고려해야 해요.

2 '고운 마음' 쓰기

- ㉠ 'ㅁ'의 필법을 익힌다.
 - 교과서 108쪽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여 'ㅁ'의 필법(필순, 획의 간격, 획의 방향과 굵기의 변화, 점필의 위치 등)을 익힌다.
- ㉡ 배자를 고려하여 화선지를 접는다.
 - 전시에서는 이름을 가로쓰기로 학습하였으나, 주어진 서제와 같이 세로쓰기할 때에는 이름을 서제의 왼쪽에 쓰되, 서제보다 약간 작게 쓴다.
 - 가로쓰기의 경우, 이름은 서제 아래쪽의 가운데에 쓴다.
 - 세로쓰기의 배자(서제와 이름을 어울리게 쓰기 위한 글자의 배치 방법)를 고려하여 화선지를 접는다. 먼저 작게 이름을 쓸 부분을 좁은 폭으로 접고, 접은 채로 다시 4등분으로 접는다.



배자를 위한 화선지 접기

- ㉢ 서제 '고운 마음'을 쓴다.
 - 앞서 탐색한 각 글자의 필법과 글자 간의 균형 및 어울림을 생각하며 서제 '고운 마음'을 쓴다.
 - 화선지에서 각 글자의 첫 획을 시작할 위치 및 상하좌우의 여백을 생각하며 쓴다.
 - 여러 장을 써 보면서 먼저 쓴 작품에서 보완할 점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연습하여 쓴다.
- ㉣ 이름을 쓴다.
 - 8절 화선지를 16등분으로 접어 자형을 생각하며 한 칸에 한 글자씩 써 본다.
 - 서제의 왼쪽 가운데에 이름, 혹은 학년과 이름을 쓴다.

전통 서예론에 나타난 정신성의 강조

한자를 만들어 낸 중국에 있어서 서예는 전통적으로 글씨를 아름답게 쓰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인격을 수양하고 바른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도 유효한 수단이라 여겨져 왔다. 다음의 여러 가지 서예론들은 선인들이 인격 수양을 위해 서예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잘 말해 준다. 이와 같은 전통은 우리나라 서예에도 그대로 전이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붓글씨 지도에 필요한 여러 형식이나 방법론과 더불어, 정신성 및 인성적인 측면에서의 지도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단원의 서제를 '고운 마음'으로 제시하였다.

손과정(孫過庭)의 '서보(書譜)'

서예를 통해 심수일체(心手一體), 즉 마음과 손이 일치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이사(李斯)의 '용필론(用筆論)'

마음이 바르면 붓이 바르고 마음이 부정하면 붓도 부정하다.

왕욱(王勣)의 '서법론(書法論)'

글씨를 배우는 자는 인품을 세우는 일을 먼저 귀하게 여기는데, 인품이 선 사람은 필묵 밖에 저절로 밝고 바른 기가 있게 된다.

중국 당나라 때 관리 등용의 기준, '신언서판(身言書判)'

사람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조건인 신수, 말씨, 문필력, 판단력을 가리키며, 특히 문필력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를 대변한다고 여겨 오던 전통에 따라 예로부터 서예를 통한 인격 도야를 강조해 왔다.

추사 김정희의 "완당집", '문자향(文字香) 서권기(書卷氣)'

'책을 많이 읽고 교양을 쌓으면 몸에서 책의 기운이 풍기고 문자의 향기가 난다. 또한,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고 믿고, 손끝의 잔재주 대신 정신의 품격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리하기

-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한다.
 - 써 놓은 글씨를 보며 궁체의 자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잘된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이야기한다.
- ㉡ 재료와 용구를 정돈한다.
 - 벼루에 남은 먹물은 붓으로 훑어 연습한 종이로 닦은 후 물통에 씻어 낸다.
 - 붓은 깨끗이 씻어 털을 가지런하게 정돈한 후 말린다.
 - 사용한 화선지는 수목 담채화 등을 연습할 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모아 정리한다.

나만의 글씨체 만들기

★ 전통 붓글씨의 특징을 살리면서 나만의 개성 있는 글씨체를 만들어 써 봅시다.

- 좋아하는 단어나 형용사(꾸밈말)를 정한다.
- 궁체의 기본 자형을 써 보고, 변화시킬 부분을 계획한다.
- 강조할 부분의 강약과 농도를 조절하여 글씨체를 만든다.
- 내가 만든 글씨체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 첫 자형을 두껍고 크게 강조한다.
 - 모퉁이 가늘게 엮는다.

궁체와 나만의 글씨체 109

표현 나만의 글씨체 만들기

교과서 109쪽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붓글씨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나만의 개성 있는 글씨체를 만들어 쓴다.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만의 개성 있는 글씨체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써 보았는가?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기 평가, 관찰법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서예 도구 일체, 수행 평가 활동지 학생: 붓, 벼루, 먹물, 화선지, 종이 받침, 물통, 서진

지도상의 유의점

- 개성 있는 새로운 글씨체를 만들되, 전통 붓글씨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이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지도한다.
- 전통 붓글씨의 정연함과 자세에서 벗어나 안이하게 대충 쓰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준다.
- 쓰고자 하는 단어나 문장의 느낌과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 일관성 있는 특징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새롭게 만들어낸 나만의 글씨체를 생활 속 다양한 곳에 활용해 보도록 한다.

교수·학습 과정

들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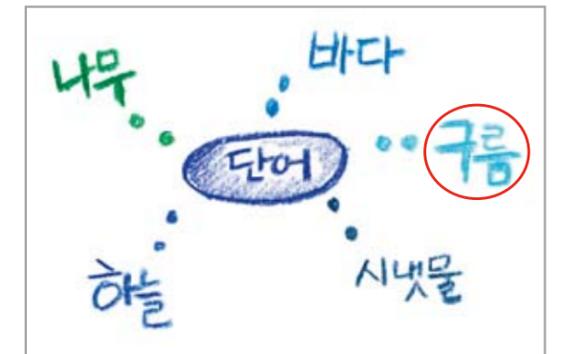
1 전통 붓글씨와 새로운 글씨체 비교하기

- ㉠ 판본체와 궁체로 쓰인 작품과 새로운 글씨체로 쓰인 참고 작품을 함께 보여 준다.
- T: 작품 속 글씨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볼까요?
- S: 판본체, 궁체로 쓴 것은 반듯하고 균형감이 있게 느껴져요.
- S: 새로운 글씨체로 쓴 것은 자유롭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 S: 채색과 그림을 더해 밝고 화사하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 T: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판본체와 궁체를 바탕으로, 이를 응용하여 나만의 개성 있는 글씨체를 만들어 써 볼 거예요.

전개하기

1 개성 있는 글씨체 만들기

- ㉠ 단계에 따라 개성 있는 글씨체를 만들어 본다.
 - 단어를 선정한다.
 - 좋아하는 단어를 선정하고 그에 적절한 형용사(꾸밈말)를 생각해 본다. 이때, 마인드맵을 작성하며 단어의 느낌이나 분위기를 구체화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 선정한 단어: 구름
- 단어의 느낌이나 분위기를 생각한다.



-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
- 날아가는 듯한 느낌
- 폭신폭신한 느낌

- 판본체와 궁체로 써 본다.

구름 구름

- 변경한 계획을 세운다.
 - 구름의 부드러운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 '구'의 'ㄱ'을 더 둥글게 강조한다.
 - 구름의 날아가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모음 '우'의 획을 구부린다.
 - 구름의 가벼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름'의 자음 'ㄹ'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한다.



- 변경한 계획을 세운다.
 - 둥글게 강조
 - 흐르듯이
- 변경한 계획을 세운다.
 - 무게구름의 둥근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름'의 받침자 'ㄹ'을 달팽이처럼 말아서 표현한다.
- 강조할 부분의 강약을 조절한다.
 - 구름의 포근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두꺼운 선을 이용한다.
 - 구름의 폭신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먹의 농담이 드러나게 표현한다.
- 단어나 문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특징을 지니도록 유의하여 표현한다.
- 먹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색 용구를 사용하여 색을 더해 표현할 수도 있다.

2 만든 글씨체의 특징 찾기

- ① 글씨체의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 T: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과 분위기를 잘 살렸는지 살펴볼까요?
 - S: 구름의 부드럽고 포근한 분위기를 살려 글자의 전체적인 형태를 휘어진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 S: 먹물의 농담 변화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었다면 구름의 폭신하고 가벼운 느낌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 ② 내가 만든 글씨체의 형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리하여 이야기해 본다.
 - T: 내가 만든 글씨체의 형태에는 어떤 느낌이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 S: 첫 자음이 크고 두껍게 강조되어 있어요.

- S: 모음은 가늘게 썼어요.
- S: 전체적으로 곡선을 많이 사용했어요.
- S: 획의 끝 부분을 가늘게 표현했어요.

정리하기

- 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한다.
 - 친구들의 작품 중 단어의 느낌이 창의적으로 잘 살려진 것을 찾아 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한다.
 - 전체적으로 글씨의 특징이 일관성 있게 표현된 작품을 찾아본다.
- ② 재료와 용구를 정돈한다.
 - 재료와 용구의 뒷정리를 바르게 하여, 다음에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박덕주(한국/1947~) 열쑤(종이에 먹/55×28cm/2013년 작)

'흥에 겨워서 떠들 때 가볍게 장단을 맞추며 내는 소리'인 '열쑤'를 서체로 정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굵고 강한 선으로 표현하였으며 흥겨운 풍물놀이의 한 판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열'의 모음 'ㄹ'에서는 가늘고 굵은 선의 변화를 크게 하여 리듬감을 주었다. 받침으로 쓰인 'ㄹ'은 구불구불한 곡선으로 한 번에 빠르게 써내려가 강한 힘이 느껴진다.

'쑤'에서 자음 'ㅍ'은 마치 산을 그린 것처럼 표현하여 전통적인 느낌을 더하였으며, 모음 '우'에서는 갈필의 느낌을 살려 먹의 느낌을 표현했다. 붉은색의 낙관이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 주는 듯하다.



박덕주(한국/1947~) 나와 너(종이에 먹/28×17cm/2013년 작)

'나'와 '너'를 서체로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뾰족이 들어선 나무의 모습이다. 마치 그림을 감상하듯 전체적인 풍경을 감상한 뒤에야 비로소 '나'와 '너'라는 서체가 눈에 들어온다. 다양한 먹의 번짐과 갈필법(마른 붓으로 그리는 기법)으로 재빠르게 지나간 선이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모습이다. 수직선을 주로 사용하여 길고 날렵한 인상을 주며, 먹의 잔잔한 번짐과 '나'와 '너'라는 서체가 서로 어울려 따스함을 전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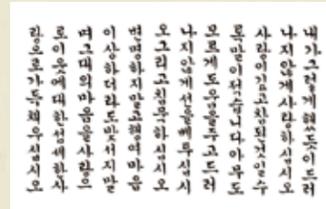


붓글씨의 다양한 모습 감상하기

★ 글씨체의 아름다움과 작품의 전체적인 균형을 살피며 감상해 봅시다.

감상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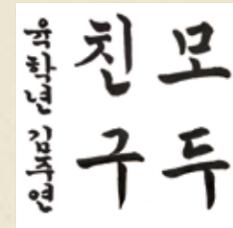
- ① 자형, 획의 굵기, 획의 방향, 글자 상호 간의 간격과 균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 ② 생활 속에서 붓글씨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찾아 이야기해 보세요.
- ③ 작가의 작품과 비교하여 나의 작품의 부족한 점을 찾아 이야기해 보세요.



▲ 박수재(한국/1953~) 말없이 사랑하십시오(종이에 먹/32×132cm/무문/2004년 작)



▲ 한명환(한국/1967~) 엄마(티셔츠에 열매 윤감/2013년 작)



▲ 김주연(학생 작품) 모두 친구(종이에 먹/36×33cm)



▲ 김상수(학생 작품) 우당소리(종이에 먹/36×33cm)



스스로 평가하기

- ① 왜? 궁체에서 자음과 모음에 따른 자형의 구조를 설명해 보세요.
- ② 표현 서체와 어울리게 이름을 쓰려면 글씨의 위치와 크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③ 감상 생활 속에서 활용된 붓글씨의 사례를 찾아 그 특징을 이야기해 보세요.

110



감상 붓글씨의 다양한 모습 감상하기

교과서 110쪽

수업 목표	• 붓글씨의 다양한 변화와 아름다움을 살펴보고, 생활 속에서 붓글씨가 활용된 사례를 찾아 그 특징을 이야기한다.
평가 기준	• 붓글씨가 활용된 다양한 작품에서 글자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평가 방법	• 관찰법, 토론법
준비물	• 교사: 붓글씨 활용의 예시 자료 • 학생: 전시에 썼던 붓글씨 작품



지도상의 유의점

- 주변에서 붓글씨가 활용된 사례를 미리 조사해 오게 한다.
- 생활 속에서 붓글씨를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가운데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 각 글씨체의 아름다움과 작품의 전체적인 균형을 살피며 감상하도록 한다.



교수·학습 과정

들어가기

1 교과서에서 붓글씨를 활용한 작품 살펴보기

- T: (110쪽을 보며) 우리 주변에서 붓글씨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 S: 티셔츠에도 붓글씨가 쓰여 있어요.
- S: 영화 포스터에도 쓰였네요.
- T: 이렇게 붓글씨는 서예 작품뿐만 아니라 의상이나 주변의 생활용품 속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전개하기

1 교과서 작품에서 붓글씨의 아름다움과 각 글씨체의 특징 찾아 비교하기

- T: 교과서 110쪽의 작품들을 보고 자형, 획의 굵기와 방향, 글자 상호 간의 간격과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 S: '말없이 사랑하십시오'는 자형이나 획의 굵기, 방향 등이 판본체보다 다양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글자들의 배열이 반듯하고 간격이 일정하여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져요.
- S: '모두 친구'는 기본적으로 궁체의 필법을 따르고 있지만 획의 길이 등에서 쓴 사람의 개성이 느껴져요.
- S: 티셔츠에 쓴 '엄마'는 자형과 획의 굵기, 방향을 자유롭게 개성 있게 변형하였고, 아랫부분의 흰색 글자들과 크기, 색채 면에서 대조를 이루며 전체적인 배치에 변화가 있어 특히 눈에 잘 들어와요.
- S: 포스터 글씨는 획을 조금씩 구부려 쓰고, 각각의 글씨 위치를 달리 배치하여 변화를 주었어요.

2 생활 속에서 붓글씨의 다양한 활용 사례 찾아보기

- T: 미리 조사해 온 생활 속에서의 붓글씨 활용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요?
- S: 비석, 현판, 문패, 책 표지, 포스터나 광고의 문구, 상점 간판 등에도 다양한 글씨체가 활용되고 있어요.
- S: 도장이나 서예 작품에 쓰이는 전각에도 활용돼요.
- S: 디자이너 이상봉은 의상, 가방 등의 무늬에 한글 붓글씨체를 변형한 디자인을 선보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 T: 붓글씨를 활용한 여러 사례에서 우리가 배운 붓글씨와는 다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 S: 쿠션, 가방, 부채, 나무, 인쇄물 등 다양한 재료나 소재에도 활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기도 해요.

3 작가의 작품과 비교하여 내 작품의 부족한 점을 찾아 이야기하기

- T: 작가의 작품과 비교하여, 지난 시간에 내가 썼던 작품

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찾아 이야기해 볼까요?

S: 전체적으로 글자의 중심이 맞지 않아 뽀뽀뽀해요. 이름도 서체에 비해 너무 크게 썼어요.

T: 다음에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더 정확히 써 보세요.

정리하기

㉠ 생활 속에서 붓글씨의 활용 방안을 알아본다.

T: 생활 속에서 붓글씨를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S: 글씨체와 색 등을 다양하게 변형시켜 여러 가지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어요.

S: 붓글씨를 적용한 패션 디자인을 통하여 한글의 조형성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어요.

S: 붓글씨 수업을 통해 여러 가지 글씨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양한 변화를 보며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 '스스로 평가하기'를 중심으로 단원 내용을 정리한다.

스스로 평가하기

■ 궁체에서 자음과 모음에 따른 자형의 구조와 변화를 설명해 보세요.

→ 궁체는 삼각형, 마름모꼴, 사다리꼴 등 판본체에 비해 자형이 다양하고, 모음에 따라 자음의 모양이 변화하는데 특히 'ㄱ', 'ㄴ', 'ㅅ'의 변화가 다양하다.

■ 서체와 어울리게 이름을 쓰려면 글씨의 크기와 위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름은 서체보다 작게 쓰고 세로쓰기의 경우, 서체의 왼쪽 가운데에, 가로쓰기의 경우 서체의 아래쪽 가운데에 학년과 이름을 쓴다.

■ 생활 속에서 활용된 붓글씨의 사례를 찾아 그 특징을 이야기해 보세요.

→ 궁궐이나 전통 건축물의 현판, 책표지나 포스터 광고 문구, 상품 이름, 거리의 간판, 의상이나 가방 디자인에 서도 붓글씨를 찾아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가. 캘리그래피(Calligraphy)

원래 캘리그래피는 아름다운 서체라는 그리스어 'kalligraphia'에서 유래되었다. 캘리그래피의 'calli'는 '미'를 뜻하며, 'graphy'는 '화풍, 서풍, 서법'의 의미이다. 즉,

개성적 표현과 우연성이 중시되는 캘리그래피는 아날로그적인 느낌과, 맛있는 글자들의 평범함을 넘어선 독특하고 창조적인 표현의 글씨체이다. 여기에는 누구나 쉽게 개성적인 글씨를 창조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특히, 요즘에는 감성 디자인을 이용한 마케팅이 주목받고 있어 캘리그래피의 활용도가 높아졌으며, 인간의 다양한 감성을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크다. 넓은 의미의 캘리그래피는 펜 또는 브러시, 나아가 새로운 도구에 의한 육필 문자 및 그 기술을 가리키기도 한다. 또한 해서, 행서, 초서 모두를 포함하며, 고전적 서풍에서 창작, 전위적 서풍까지도 포괄한다. 최근에는 유연하고 동적인 선, 글자 자체의 독특한 번짐, 살짝 스쳐 가는 효과, 여백의 균형미 등을 추구하는 순수 조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 캘리그래피의 특징

캘리그래피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함축적 의미와 아름다운 글자 모양은 사람들의 시선을 효과적으로 고정시키는 매력을 발휘한다. 또한, 글자 자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상징성이나 하나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사람이 생활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목적에 걸맞게 캘리그래피를 활용하고 있다. 캘리그래피의 구체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독성은 글자가 명확하게 보이고, 전체적으로 문장의 내용이 쉽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추가 설명 없이도 읽고 이해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둘째, 주목성은 어느 특정 부분에 시선이 집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시선이 중심 내용에 고정될 수 있도록 공간 안에서 차별을 두어야 한다. 이는 캘리그래피가 시각 디자인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율동성은 글자에서 보이는 흐르는 듯한 유연함과 리듬감을 포함해야 한다. 타이포그래피와 같이 일정한 규칙이나 정형성을 가지는 글씨가 아닌, 손글씨의 개성과 불규칙함을 장점으로 부각해야 한다.

넷째, 조형성은 캘리그래피 자체가 조형적 요소이기 때문에 선의 움직임과 형태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독창성은 쓰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글씨체로 새로운 느낌을 표현해 낼 수 있다.

참고 문헌

김진원 저, 길잡이 한글서예, 학일출판사, 1993.
박병천 저, 한글 궁체의 이해, 일지사, 1983.
이규복 저, 캘리그래피, 안그라픽스, 2008.
조수호 저, 서예술 소요, 서예문인화, 2005.



궁체와 나만의 글씨체로



나만의 글씨체 만들기

교과서 109쪽

개성 있는 나만의 글씨체 만들기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 같은 단어를 다양한 글씨체로 써 보며 어떤 글씨체가 가장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준비물

교사

다양한 글씨체
참고 작품

학생

활동지, 필기도구,
색연필, 사인펜, 마커,
잉크, 나무젓가락 등
표현을 위한 다양한 재료

평가 방법

실기 평가,
포트폴리오법,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5-3 다문화와 공예

중단원의 개관

중단원 '다문화와 공예'는 세계 여러 지역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 공예품을 통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이를 제작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인간은 기본적인 삶의 양식에서 오는 문화의 보편성과 동시에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고의 차이로 인한 문화의 다양성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와 다른 나라의 예술품을 통해 인류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학습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기초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 단원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표현 방법을 익혀 다양한 전통의 특성을 살린 의상과 장신구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심화 '생활에 멋을 더하는 한지 공예' 단원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한지 공예품의 쓰임과 제작 방법을 익혀 여러 가지 한지 공예품을 만들어 보고, 전통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중단원의 목표

- ★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 한지 공예품의 특징을 이해한다.
- ★ 의상과 장신구, 공예품의 특징과 표현 효과를 알고 다양한 표현 방법을 탐색한다.
- ★ 여러 가지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 및 과정을 탐색하여 의상과 장신구, 한지 공예품을 표현한다.

중단원의 구성

■ 체험 ▲ 표현 ● 감상

수준	소단원명	교과서 쪽수	지도서 쪽수	소단원의 제재명
기초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	111~114	256~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 살펴보기 ▲ 전통을 살린 의상과 장신구 만들기 ● 전통의 계승
심화	생활에 멋을 더하는 한지 공예	115~118	265~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지 공예 살펴보기 ▲ 한지로 보관 용기 만들기 ● 한지 공예 감상하기



5-3. 다문화와 공예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

기초

소단원의 개관

기초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 단원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의 종류 및 특징을 살펴 다양한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제작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의상과 장신구의 표현 방법을 익혀 이를 생활 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인류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단원에서는 우선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의 형태, 문양 등을 살펴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이해한다. 이어서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살려 자신의 의상과 장신구를 만들어 본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의상과 장신구 자료를 수집하여 현대 작품 속에 계승되고 있는 전통 문화적 특징을 찾아봄으로써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소단원의 목표

-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의 특징을 찾아본다.
- ▲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의 특징을 살려 나의 의상과 장신구를 만들어 본다.
- 전통 의상과 장신구의 현대적 계승의 사례와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수업의 구성

구분	제재명	교과서 쪽수	지도서 쪽수	주요 학습 활동	차시
체험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 살펴보기	111	256~2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의상과 장신구 특징 살펴보기 •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가 서로 다른 이유 알기 • 표현 방법 탐색하기 	6
표현	전통을 살린 의상과 장신구 만들기	112~113	258~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의상의 특징을 살려 나의 의상 만들기 • 전통 장신구의 특징을 살려 나의 장신구 만들기 	
감상	전통의 계승	114	261~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의상과 장신구에 나타난 문화적 특징 찾기 • 문화의 계승 발전이 중요한 이유 이야기하기 	

※ 수업의 구성은 학교 상황이나 여건, 학생들의 수준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평가

■ 체험 ▲ 표현 ● 감상

교육 과정 내용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상	중	하
■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 발견하기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의 표현 형식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의 다양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의 특징을 찾아 설명하는 데 미흡하다.
▲ 주제의 특징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의 다양한 표현 효과를 살려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의 다양한 표현 효과를 살려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의 다양한 표현 효과를 살려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의 다양한 표현 효과를 살려 주제를 표현하는 데 미흡하다.
● 미술 작품의 특징을 찾아 설명하기	현대 의상과 장신구에서 전통문화가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현대 의상과 장신구에서 전통문화가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현대 의상과 장신구에서 전통문화가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현대 의상과 장신구에서 전통문화가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데 미흡하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의 특징을 이해하고 만들어 봅시다.

생각하기

의상과 장신구는 몸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신분과 개성을 나타내고, 나라와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을 나타내 줍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의상과 장신구의 특성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살펴볼까요?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 살펴보기

★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의 특징을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 나라별로 특징 있는 전통 의상과 장신구를 찾아보세요.
-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가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전통 의상과 장신구의 형태, 문양 등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기 문양 <=> 용이 알기 120쪽 **준비 활동**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전통 의상에 대하여 조사해 보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 111



체험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 살펴보기

교과서 111쪽

수업 목표	•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의 특징을 찾아본다.
평가 기준	•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가?
평가 방법	• 관찰법
준비물	• 교사: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 사진 또는 실물 자료,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징을 소개하는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등 • 학생: 수집한 사진 자료, 의상과 장신구에 따른 자연적·문화적 환경의 특징 조사 자료



지도상의 유의점

- 자연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의 영향이 잘 드러나는 의상과 장신구를 선정하여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한다.

- 사회과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단원과 연계하여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을 관련지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학습할 수 있다.
- 다양한 문화의 동질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수·학습 과정

▶ 들어가기

1 여러 나라의 모자 살펴보기

- T:** 교과서 111쪽의 인디언의 모자와 페루의 모자, 인도의 모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 S:** 머리를 보호하거나 장식하기 위해 쓰는 것이지만 재료와 색, 모양이 다릅니다.
- T:** 네덜란드의 의상과 아프리카의 의상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 S:** 네덜란드 의상은 꽃이 많이 그려져 있고, 아프리카 의상에는 단순한 문양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 T:** 왜 이렇게 모양이 서로 다른 걸까요?
- S:** 지역 간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징이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전개하기

1 전통 의상과 장신구의 특징 살펴보기

- ㉠ 전통 의상과 장신구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 전통 의상의 의미: 그 지역의 역사, 지리 및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전통 의상은 민속 문화의 한 부분으로 그 안에는 그 지역 고유의 풍습, 가치관, 기호, 소재, 공예, 기술 등의 사회적 배경과 자연환경이 반영되어 있다.
 - 장신구: 몸을 치장하는 데 쓰는 도구로 관모, 머리 장신구, 목걸이, 귀걸이, 흉식, 팔찌, 반지 등이 있다.
- ㉡ 다양한 지역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를 살펴보고, 주로 사용하는 지역과 이름을 알아본다.
- 인도 전통 의상, 사리: 다양한 색을 사용하고 자르지 않은 긴 하나의 천으로 몸 전체를 가리는 것이 특징이다. 얇고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더운 기후에 알맞게 만들었고 화려한 느낌을 준다.
 - 아메리카 인디언의 깃털 모자: 새의 깃털을 이용하여 머리에 후광이 비치듯 장식된 깃털 모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흰색, 검은색, 빨간색 등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여 눈에 잘 띄도록 만들었다. 커다란 깃털을 풍성하게 사용하여 모자를 착용하는 사람의 위엄을 나타냈다.

나타냈다.

- 페루 전통 의상, 판초: 동물의 가죽이나 옷감의 중앙에 머리가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머리를 밀어 넣어 어깨에 걸쳐 입는 옷이다. 빨강과 검정의 대비가 강렬하며 소매가 뚫리지 않은 형태로 기하학적 무늬가 화려하게 짜여 있는 것을 주로 입는다.
- 네덜란드 전통 의상 '볼렌담': 네덜란드의 전통 의상 중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의상이다. 볼렌담 여성 의상에서는 카플랍 위에 있는 꽃무늬 장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눈에 띈다. 카플랍은 가슴과 등을 덮는 천으로, 보통 꽃무늬 자수와 함께 빨강, 노랑, 초록, 파랑, 하양과 같은 밝은 컬러로 만들어진다. 볼렌담은 이 카플랍 위에 흰색의 뽀족한 레이스 고깔모자와 세 줄로 된 빨간 코랄 목걸이도 함께 걸친다.
- 아프리카 마사이족 전통 의상과 장신구: 키가 크고 늘씬한 마사이족들은 화려한 색을 선호하는데, 다양한 색조의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염색한 천을 유연한 몸에 느슨하게 둘러 입는 편이다. 여자들은 흔히 원판처럼 생겼고, 구슬로 장식되어 있는 큰 목걸이와 다양한 색상의 머리띠로 자신을 치장한다. 팔과 발목에는 두꺼운 구리 코일을 꼭 끼게 감기도 한다.

2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가 서로 다른 이유 알기

- ㉠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가 서로 다른 이유를 이야기한다.
- 기후에 따라 더운 지방의 옷은 얇은 천을 두르거나 몸에 헐렁한 옷을 주로 입는 데 비해, 추운 지방의 옷은 몸에 붙고 두터우며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허리띠로 감싼 옷들이 많다.



시베리아의 척기 부족 의상



말레이시아의 전통 의상

- 종교나 문화적 특징에 의해 힌두교는 재봉한 솔기가 없는 옷을 깨끗한 옷이라 생각하여 자르지 않은 형태의 옷을 주로 입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히잡'이라는 머리와 목 등을 가리는 베일을 착용한다.



히잡

- 교류와 침략으로 서로의 문화가 전해지면서 의상과 장신구에 영향을 주었다.

3 전통 의상과 장신구의 형태, 문양 등의 특징 알기

㉠ 착용하는 방식에 따라 옷을 분류해 본다.

- 요의: 허리에 둘러 입는 옷
예) 늘어뜨린 치마형: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사롱', 미얀마의 '론지', 타이의 '파신'



사롱

- 권의: 긴 천을 자르거나 바느질하지 않고 몸을 감싸거나 둘러 입는 옷
예) 인도의 '사리', 그리스의 '히마티온', 로마의 '토가', 이슬람의 순례복 '이흐람'



사리

- 관두의: 옷감의 중앙에 머리를 넣어 어깨에 걸쳐 입는 옷
예) 멕시코의 '판초'



판초

- 통형의: 관두의에서 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옆선을 꿰맨 옷
예) 아랍 지역의 '아바야, 도브', 인도의 '구르다' 등



아바야

- 전개의: 양쪽 팔을 넣어 입고 앞에서 여미도록 만들어진 옷
예) 한국의 '한복', 일본의 '기모노', 중앙아시아의 '차판', 부탄의 '고'



기모노

- 바지: 기마 생활을 하는 스키타이 계통의 유목 민족을 중심으로 발달된 의복, 추운 지방에서는 꼭 끼는 바지, 사막 지대에서는 헐렁한 바지를 착용한다.
예) 터키의 '샤르와르', 인도의 '주디다르', 한국의 '바지' 등



샤르와르

▶ 정리하기

- ㉠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의 표현 형식의 특징과 그 이유를 이야기한다.
- 지역적 특징과 문화적 특징에 따른 전통 의상의 특징을 이야기한다.



전통을 살린 의상과 장신구 만들기

120회 준비물 144회

★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의 특징을 살려, 내가 입고 싶은 의상을 만들어 봅시다.



▲ 김장섭, 서보경, 임하나, 홍수정 (학생 활동 작품) 치마오 달은 흰베스 (색한지, 종(120×60cm))

내가 만든 치마오

전체적으로 몸에 달라붙고, 목의 것이 세워진 것이 특색이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트임이 있어 활동하기 편하다.

● 검은색 ● 빨간색 ● 흰색 ● 파란색

▲ 중국 전통 의상 '치마오'

● 동물 문양 ● 용, 물고기, 나비 ● 식물 문양 ● 연꽃, 모란



▲ 스웨덴의 전통 의상 '드린달'



▲ 페루의 전통 의상 '핀초'



▲ 터키의 전통 의상 '카프탄'



▲ 손채은, 김은비, 배재희 (학생 활동 작품) 8이디 치마(색한지, 벨크로(120×60cm))



▲ 정영민, 이종훈, 한광은 (학생 활동 작품) 판초의 특징을 살린 뿔옷(색한지(60×55cm))



▲ 이현란, 배예솔, 최원(학생 활동 작품) 터키의 특징을 살린 조끼와 치마(색한지, 부피코, 벨크로(140×60cm))

★ 세계 여러 나라 장신구의 특징을 살려, 나의 장신구를 만들어 봅시다.

144회 준비물 144회

나의 장신구 만들기

1 만든 의상에 어울리는 장신구를 정한다.
2 장신구에서 표현하고 싶은 특징을 정한다.
3 적절한 재료와 표현 방법을 찾는다.

1 아프리카 원주민의 목걸이
2 중국 청나라의 머리띠
3 베에린(학생 작품) 목걸이(골판지, 수수깡, 철사(28×28cm))
4 빅올빈(학생 작품) 머리띠(골판지, 재활용 머리띠, 고무 끈(25×15cm))
5 입북린(학생 작품) 보석 목걸이(스티로폼 공, 사인펜, 공예 철사(52×22cm))
6 발람(학생 작품) 조신 후기
7 색나경(학생 작품) 팔걸고무줄(지점도, 아크릴 물감/지름: 각 6cm)

이렇게 해요

1 종이컵의 밑면을 잘라 밑판을 만든다.
2 지점도로 원하는 모양을 만든다.
3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색을 칠한다.
4 종이를 베어 내고 머리띠에 붙여 완성한다.

이렇게 해요

1 종이컵의 밑면을 잘라 밑판을 만든다.
2 지점도로 원하는 모양을 만든다.
3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색을 칠한다.
4 종이를 베어 내고 머리띠에 붙여 완성한다.

▲ 빅올빈(학생 작품) 팔걸고무줄(지점도, 아크릴 물감, 머리띠(3×15cm))



표현 전통을 살린 의상과 장신구 만들기

교과서 112~113쪽

수업 목표	●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의 다양한 표현 효과를 활용하여 내가 입고 싶은 의상과 장신구를 만든다.
평가 기준	●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의 다양한 표현 효과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상과 장신구를 만들 수 있는가?
평가 방법	● 관찰법, 작품 평가
준비물	● 교사: 세계 전통 의상 사진 자료 ● 학생: 색한지, 가위, 풀, 벨크로, 골판지, 수수깡, 종이컵, 공예 철사, 모루, 니퍼, 철사, 마분지, 지점도, 끈, 칼, 재활용 머리띠, 고무줄, 아크릴 물감 등



지도상의 유의점

- 전통 의상에 나타난 입는 방법에 따른 형태, 색, 문양 등의 조형적 특징을 잘 파악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반영한 의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 한지는 부드럽고 질겨 의상 만들기에 적합하나, 허리에 둘러 고정하거나 머리에 끼우는 부분이 잘 찢어질 수 있으므로 벨크로나 청 테이프, 접착용 펠트지 등을 활용하여 견고성을 높이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한다.



교수·학습 과정

▶ 들어가기

1 전통 의상의 좋은 점 이야기하기

- T:**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에서 편리한 점이나 아름다운 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 S:** 멕시코의 판초는 겨울철에 쉽게 덧입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S:** 중국의 전통 의상인 치파오는 색과 문양이 선명하고 아름다워요.

▶ 전개하기

1 전통 의상의 특징을 살려 나의 의상 만들기

- ① 모둠별 계획을 세운다.
- 입는 방법에 따른 옷의 형태를 살펴본다. 허리에 두르는

옷, 몸 전체를 감싸 두르는 옷, 머리를 끼워 입는 옷, 옆을 박아 입는 옷, 앞을 열어 팔을 끼워 입는 옷, 바지처럼 입는 옷 등을 살펴본다.

-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어떤 옷을 만들지 생각해 본다.
 - 앞을 열어 팔을 끼워 입는 형태의 치파오를 만들고 싶다.
 - 머리를 끼워 입는 권두의 형태의 판초를 만들겠다.
 - 천을 허리에 둘러 입는 요의 형태의 치마를 만들고 싶다.
- 전통 의상의 색과 문양을 살펴본다.
 - 활용된 색의 의미를 살펴본다.
 - 주로 활용된 전통 문양을 살펴본다.

② 의상을 제작한다.

- 입는 방법을 생각하며 의상을 재단한다.
- 예시 1) 전개형의 옷 '치파오' 재단하기
 - ① 알맞은 색을 선택하여 바닥에 깔고 몸의 치수를 그린 다음 실제 몸보다 약간 크게 본을 뜬다.
 - ② 형태적 특징을 생각하며 스케치한 후, 재단한다.
 - ③ 앞면과 뒷면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입을 수 있도록 붙인다.
 - ④ 문양을 잘라 붙인다.
 - ⑤ 벨크로 시트나 매듭을 활용하여 앞을 여밀 수 있도록 고정하여 완성한다.



의상의 앞면과 뒷면을 연결하는 방법: 재단한 형태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이테이프를 내부에서 붙여 준다.



여밌 만드는 방법: 의상을 입고 벗을 때 찢어지지 않도록 벨크로를 이용하여 여밌을 만들어 준다.

- 예시 2) 요의형 허리띠가 있는 치마 만들기
 - ① 색한지를 2~3장 덧붙여 몸을 두를 수 있는 치마를 1장 또는 2장을 만든다.
 - ② 입을 사람의 허리둘레 길이의 허리끈을 만들어 치마의 허리 부분에 붙인다. 주름을 잡을 경우, 치마폭을 허리둘레의 2~3배가량으로 크게 잡는다.
 - ③ 색과 무늬를 생각하며 꾸민다.
 - ④ 허리띠에 벨크로를 붙여 떼었다 붙일 수 있도록 한다.



치마 허리띠 붙이기: 치마의 허리 부분에 벨크로를 붙여 허리둘레에 맞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한다.

2 전통 장신구의 특징을 살려 나의 장신구 만들기

- ① 모둠별 계획을 세운다.
- 의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장신구를 정한다.
 - 머리에 쓰는 장신구:



청나라의 '양파두'



일본의 '교쿠산'

- 목이나 몸에 걸치는 장신구



중국 요족의 '유환'



카자흐스탄의 허리띠



아프리카 원주민의 목걸이

- 세계 여러 나라의 장신구에서 표현하고 싶은 특징을 정한다.
 - 콩고 원주민의 목걸이에서 이빨 장식과 구슬이 번갈아 끼워진 모습을 표현하고 싶다.
 - 중국 전통 머리 장식인 양파두에서 크고 화려한 꽃 장식을 달게 표현하고 싶다.
 - 우리나라 전통 머리 장식인 떨잠에서 동그란 장식의 모양을 달게 표현하고 싶다.
- 적절한 재료와 제작 방법을 찾는다.
 - 다양한 재료를 구멍을 내어 끼워서 목걸이나 팔찌, 허리띠 등을 만든다.
 - 칼로 자르거나 구부러 모양을 만들어 붙여서 장신구를 만든다.
- 모둠별 역할 분담을 한다.

㉔ 장신구를 제작한다.

- 스티로폼 공으로 목걸이를 만든다.

- ① 스티로폼 공에 공예 철사나 가는 철사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둔다.
- ② 끼우는 구멍을 생각하며 문양의 특징이 드러나게 무늬를 그려 넣는다.
- ③ 목걸이의 형태를 생각하며 구슬을 끼워 목걸이를 완성한다.



① 스티로폼 공에 구멍 내기 ② 색과 문양으로 무늬 꾸미기 ③ 목걸이 끼우기



완성작

- 지점토로 펄잡 고무줄을 만든다.

- ① 종이컵 밑면을 잘라 펄잡 틀을 만든다.
- ② 지점토를 틀에 채워 원하는 모양으로 펄잡을 만든다.
- ③ 지점토가 굳으면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색을 칠한다.
- ④ 종이 틀을 떼어 내고 목공용 풀이나 글루 건을 사용하여 고무줄에 붙여 완성한다.



- 골판지나 수수깥을 이용하여 목걸이를 만든다.

- ① 띠 골판지를 이용하여 끼울 수 있도록 둥글게 말아 준비한다.
- ② 수수깥을 잘라 구멍을 낸다.
- ③ 색과 모양을 생각하며 공예 철사나 줄에 끼워 목걸이를 완성한다.



- 골판지를 이용하여 머리띠를 만든다.

- ① 8절 골판지를 1cm 간격으로 자르거나 띠 골판지를 준비한다.
- ② 띠 골판지를 말거나 접어 꽃 모양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본형을 만들어 본다. 목공용 풀이나 글루 건을 사용하여 붙여 가며 만들면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
- ③ 기본형을 붙여 꽃 모양을 만든다.
- ④ 꽃을 머리띠에 붙여 완성한다.



① 글루 건을 사용하여 붙여 가며 모양을 만든다. ② 기본형을 붙여 다양한 꽃 모양을 만든다.



③ 꽃을 재활용 머리띠에 붙여 새로운 머리띠를 완성한다.

▶ 정리하기

- ①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 전통 의상에서 활용한 표현 효과에 관해 이야기한다.
 - 전통 의상의 형태를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 전통 의상의 색과 문양을 적용하여 표현하였다.
 - 전통 장신구에서 활용한 표현 효과에 관해 이야기한다.
 - 재료의 특징이 드러나게 색과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 자신을 돋보일 수 있는 색과 문양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 주술적인 의미가 드러나도록 표현하였다.
- ② 주변을 정리한다.
 - 의상과 장신구는 다음 차시를 위해 잘 보관한다.
 - 재료를 분리하여 보관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전통의 계승

★ 전통 의상과 장신구가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감상해 봅시다.

감상 관점

- ① 어떤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찾을 수 있나요?
- ② 전통의 특징을 살리면서 현대 생활에 맞게 변화된 의상과 장신구의 예를 찾아 이야기해 보세요.
- ③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은 왜 중요할까요?

▲ 매듭 팔찌(한국)

▲ 드림캐처를 활용한 목걸이(미국 인디언)

▲ 화려한 패턴을 활용한 티번과 의상(아프리카)

▶ 이상봉(한국/1945~) 한글 의상 패션쇼(2012년)

▲ 전통 문양과 색을 강조한 드레스(중국)

스스로 평가하기

- ① 체험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 ② 표현 내가 만든 의상과 장신구의 특징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 ③ 감상 전통문화 계승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세요.

114 5-3. 다문화와 공예

▶ 감상 전통의 계승

교과서 114쪽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의상과 장신구에서 전통문화가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의 의상과 장신구에서 전통문화적 특징을 찾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법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전통을 살린 의상과 장신구 사진 자료 • 학생: 제작한 의상과 장신구

▶ 지도상의 유의점

- 에스닉 패션쇼 관련 자료나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의상과 장신구 중 전통문화 요소가 반영된 자료를 수집하여 현대 생활에 전통문화가 계승·발전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를 직접 입고 선보일 수

있는 학급 패션쇼를 열거나 다문화 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교수·학습 과정

▶ 들어가기

- T:** 지난 시간 모둠별 의상과 장신구를 제작하면서 어떤 표현 효과를 중심으로 표현하였나요?
- S:** 옷을 입는 방법에 따른 형태적 특징을 잘 살펴보고 만들었습니다.
- S:** 전통 의상에 나타난 표현 방법을 익혀 만들었습니다.
- S:** 전통 의상에 나타난 색과 문양을 적용하여 만들었습니다.
- T:** 이번 시간에는 전통 의상과 장신구가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감상 작품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 전개하기

- 1 현대 생활에 변화된 의상과 장신구 자료 살펴보기**
- T:** 교과서 114쪽에 제시된 의상과 장신구에는 어떤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찾을 수 있나요?
- S:** '이상봉의 한글 의상 패션쇼'는 우리 전통의 복식처럼 바지와 윗옷으로 만들었으며, 윗옷을 끈으로 묶어 전통 도포의 끈이나 허리띠를 연상하게 합니다. 흰색 천에 검은색 먹으로 쓴 듯한 글씨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살려 매우 세련된 느낌을 줘요.
- S:** '전통 문양과 색을 강조한 드레스'에서는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빨간색이 강조되었고, 금박으로 문양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화려함이 돋보여요.
- S:** '매듭 팔찌'는 한국의 전통 공예 기법인 매듭을 활용하여 만들었어요.
- S:** '화려한 패턴을 활용한 티번과 의상'은 아프리카 의상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하지만 화려한 패턴을 활용하여 통일성이 느껴져요. 또 작은 패턴이 아닌 큰 패턴을 활용하여 전체적으로 시원해 보이는 느낌도 들어 더운 지역 사람들에게 잘 맞는 패션이라고 생각해요.
- S:** '드림캐처 활용한 목걸이'는 미국 인디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좋은 꿈을 꾸게 해 준다고 여겨져 왔다고 해요. 이런 드림캐처는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여 장식용으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 2 전통의 계승과 발전의 중요성 알기**
- T:** 전통의 계승·발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봅시다.

S: 전통문화는 그 지역 고유의 풍습과 가치관을 나타내며 그 민족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닌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정리하기

- T: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 보세요.
- S: 이상봉의 한글 의상은 일상생활에서 전통문화를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 S: 전통 매듭 공예를 이용한 팔찌나 목걸이 장신구도 일상생활에서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 S: 오방색을 이용한 미술 작품 전시회에서도 전통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 S: 위와 같이 다양한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대 생활에 전통문화를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H* 스스로 평가하기

-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 인디언의 깃털 모자는 새의 깃털을 이용하여 화려하고 풍성하게 장식했다. 마치 왕의 왕관을 보는 듯한 위엄이 느껴진다.
 - 인도의 전통 의상 '사리'는 한 장의 천을 꿰매거나 자르지 않고 그대로 몸에 감는 형태가 독특하다. 색이 강렬하고 눈에 잘 띄어 화려한 느낌이 든다.
- 내가 만든 의상과 장신구의 특징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 '목걸이'는 아프리카 원주민의 목걸이에서 특징을 따와 만든 것으로, 골판지를 동그랗게 말아서 구슬을 만들고 사이사이에 길고 뾰족하게 자른 수수깡을 끼워서 이빨 모양을 표현하였다.
 - '머리띠'는 중국 청나라의 머리띠에서 특징을 따와 만든 것으로, 다양한 색상의 골판지를 이용하여 커다란 꽃을 만들고 주변에 장식을 덧붙여 완성하였다.
- 전통문화 계승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세요.
 - 전통문화는 각 지역과 민족 고유의 풍습과 가치관을 나타내며, 민족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전통문화를 잊어버리지 않고 현대에 맞게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 자료

가. 장신구

장신구는 몸을 치장하는 도구이다. 신체 부분에 직접 쓰거나 걸거나 끼는 장식품과 의복의 표면에 장식을 위해 붙이거나 매거나 또는 늘어뜨리는 소품과 모든 장식을 위해 필요한 소품으로서 자신을 미화하기 위해서 몸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일차적 본능의 욕구는 자기 보존에 있으며, 인간이 욕망을 충족시킨 후에는 심리적인 욕구로서 온몸을 장식하는 장식적 욕구하는 욕구가 있다.

한국에서는 장신구가 사용된 흔적은 이미 선사 시대부터 나타나고 있다. 신석기 시대 조개더미 유적에서 출토된 조가비, 동물 송곳니로 만든 치레걸이 라든가 청동기 시대의 부족장의 의식용 장식구로 추측되는 벽옥 목걸이, 호형, 마형의 대구(띠고리) 등이 그 예이다. 이 밖에도 단순하고 소박한 머리장식품, 팔찌, 귀걸이, 반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선사 시대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의복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신체를 장식한다는 것의 의미는 첫째, 다른 종족과 구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단의 소속감의 일치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표출하는 것이며, 둘째는 부의 과시나 힘을 상징하는 신분으로 사회 제반에 관한 지배 계층의 우월성과 더불어 차별화를 추구하였다. 셋째는 종교적 제사 의식을 통하여 절대자와 평범한 인간의 정체성을 연결하고자하는 종교적 부산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나. 한복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민족 고유의 의복.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아름답고 특히 여자 옷은 짧은 저고리와 넉넉한 치마가 어울려 단정하고 아담한 고유의 멋을 풍긴다.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를 기본으로 하며,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를 기본으로 한다. 발에는 남녀 모두 버선을 신는다. 예복과 평상복이 나뉘어 있으며 남녀별 성인과 어린이용, 계절별로 무늬와 재질, 모양새가 나뉜다. 비단, 면, 마 등 다양한 천을 사용하여 만들어 입었으며, 오늘날에는 합성 섬유를 사용하기도 한다.

참고 문헌

김은옥 역, 치레의 멋, 쓰임의 아름다움: 장신구,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2005.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



준비물

교사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과 장신구의 사진 및 동영상 자료

학생

활동지, 필기도구

평가 방법

실기 평가,
포트폴리오법,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 살펴보기

교과서 111쪽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의 특징 살펴보기

___학년 ___반 이름 ___

- 어떤 의상 혹은 장신구를 만들지 정해 보세요.

-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 혹은 장신구에서 표현하고 싶은 특징을 정해 보세요.

- 표현하고자 하는 의상과 장신구에 알맞은 재료와 제작 방법을 알아보세요.

- 제작하려는 의상 혹은 장신구의 모습을 간단히 그려 보세요.



생활에 멋을 더하는 한지 공예



소단원의 개관

심화 '생활에 멋을 더하는 한지 공예' 단원은 한지 공예의 특징과 다양한 제작 방법을 익혀 생활에 필요한 보관 용기를 만들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이 계승 발전시켜 온 전통 한지 공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 단원에서는 한지로 만든 전통 생활용품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한지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어서 판을 이용하여 한지를 붙이거나 혹은 종이 끈으로 만들어 엮는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보관 용기를 만들어 본다. 마지막으로 용기의 용도, 한지의 활용과 제작 방법, 조형적인 특성을 찾으며 서로의 작품을 감상한다.

소단원의 목표

- 한지로 만든 전통 생활용품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한다.
- ▲ 종이판으로 골격을 만들거나 종이 끈으로 엮어 보관 용기를 만들어 본다.
- 서로의 작품을 살펴보고 표현 방법의 특징과 쓰임, 아름다움을 이야기해 본다.

수업의 구성

구분	제재명	교과서 쪽수	지도서 쪽수	주요 학습 활동	차시
체험	한지 공예 살펴보기	115	2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지 공예품의 종류, 재료 및 제작 방법 알기 한지의 특성 알기 	6
표현	한지로 보관 용기 만들기	116~117	266~2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판을 이용한 한지 보관 용기 만들기 종이 끈을 엮어 보관 용기 만들기 	
감상	한지 공예 감상하기	118	269~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지 공예의 표현 방법의 특징과 아름다움 감상하기 	

※ 수업의 구성은 학교 상황이나 여건, 학생들의 수준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바랍니다.

학습 평가

■ 체험 ▲ 표현 ● 감상

교육 과정 내용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상	중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목적과 의도를 반영한 시각 문화 찾아보기 	한지 공예품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한지 공예품의 종류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지 공예품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한지 공예품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는 데 미흡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면, 입체, 영상 등의 특징과 표현 효과를 알고 다양한 표현 방법을 탐색하기 	한지 공예 기법을 활용하여 보관 용기를 만들 수 있다.	한지 공예 기법을 활용하여 쓸모 있고 아름다운 보관 용기를 만들 수 있다.	한지 공예 기법을 활용하여 보관 용기를 만들 수 있다.	한지 공예 기법을 활용하여 보관 용기를 만드는 데 미흡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 작품의 특징을 찾아 설명하기 	한지 공예의 표현 특징과 쓰임,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지 공예품의 표현 특징과 쓰임, 아름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지 공예품의 표현 특징과 쓰임,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지 공예품의 표현 특징과 쓰임, 아름다움을 찾는 데 미흡하다.

5-3 다문화와 공예

생활에 멋을 더하는 한지 공예

한지 공예품의 쓰임과 제작 방법을 알고, 보관 용기를 만들어 봅시다.

생각하기

자연의 재료로 만들어진 한지는 색감과 통기성이 좋고 여러 겹 붙이면 매우 견고하여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한지 공예의 다양한 기법을 익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볼까요?

한지 공예 살펴보기

★ 한지로 만든 전통 생활용품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봅시다.

- 어떤 목적으로 제작되었을까요?
- 어떤 재료와 방법으로 만들었을까요?
- 한지는 어떤 특성이 있나요?

한지를 잘고 길게 찢어 꼬아 만든 실로 만들었어요.

▲ 종이 합 한지/높이: 9.5cm, 지름: 23cm(조선 후기)

▲ 지승 다래끼 한지/높이: 15.5cm, 지름: 27cm(조선 후기)

▲ 색상자 한지/33.5×33.5×13cm(조선 후기)

한지의 특성

다나무로 만들어 가볍고 질기며 수명이 오래간다.

재질이 부드럽다.

보온과 통풍 효과가 우수하다.

다양한 색감이 있어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미술 용어 알아보기 한지 공예 → 용어 알기 121쪽

생활에 멋을 더하는 한지 공예 115

체험 한지 공예 살펴보기

교과서 115쪽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지로 만든 전통 생활용품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한다.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지로 만든 전통 생활용품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찰법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다양한 한지 공예품 사진 자료(전지 공예, 지승 공예, 지호 공예품 등) 학생: 한지 공예품 수집 자료

지도상의 유의점

- 한지의 특성과 더불어 한지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 제작 방법에 따라 쓰임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살펴볼도록 한다.
- 한지가 지니는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수·학습 과정

▶ 들어가기

1 한지 공예 기법 살펴보기

- T:** 교과서 115쪽의 그림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 S:** 민속촌이나 박물관을 방문하였을 때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 공예품입니다.
- S:** 재료가 모두 한지입니다.
- T:** 맞아요. 이렇게 한지를 이용하여 만든 공예품을 한지 공예품이라고 합니다. 전통 한지 공예의 다양한 표현 방법과 표현 효과에 대해 살펴볼까요?

▶ 전개하기

1 한지 공예품의 종류와 제작 방법 알기

① 115쪽의 한지 공예품 종류와 제작 방법을 살펴본다.

종류	제작 방법	용도
다래끼	한지를 꼬아 끈처럼 만들어 천을 찢듯이 엮어 만든다.	곡식을 담아 두거나 물건을 담아 이동한다.
합	한지를 흠처럼 붙여서 만든다.	작은 물건을 담아 둔다.
색상자	한지를 여러 겹 붙여 판처럼 만든 다음 색한지를 붙여 만든다.	색실이나 장신구, 한복 등을 보관한다.

2 한지의 특성 알기

- ① 한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본다.
- 한지는 다나무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전통 우리 종이를 일컫는 말이다.
 - 제지술이 중국보다 뛰어났으며 조선 시대에는 제지를 담당하는 관청을 두어 다양한 용도의 한지와 색지를 생산하였다.
- ② 한지의 특성을 알아본다.
- 질기고 수명이 오래간다.
 - 다양한 색상의 조화가 아름답다.
 - 친환경적이다.

▶ 정리하기

- ①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 한지 공예품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정리한다.
 - 한지 공예의 다양한 표현 방법에 따른 표현 효과를 정리한다.
 - 한지의 유래와 특성을 정리한다.
 - 우리의 전통 공예 재료로서 한지의 우수함을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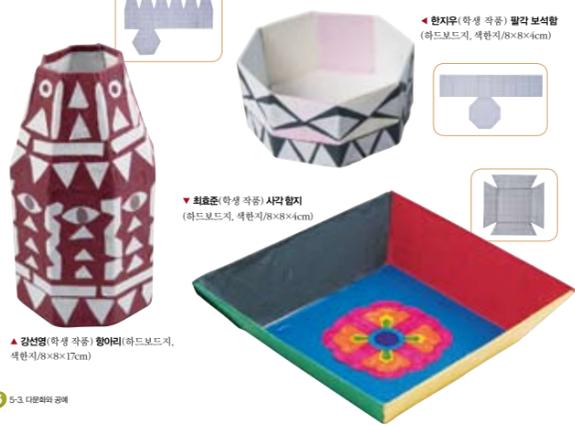
한지로 보관 용기 만들기

★ 판을 이용하여 뼈대를 만들고 한지를 붙여 보관 용기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요



1 원하는 모양의 평면도를 하드보드지에 그리고 모양대로 자른다. 2 하얀색 바탕지를 준비하여 하드보드지보다 여백 0.5cm를 더 주어 자른다. 3 하드보드지에 바탕지를 붙인 후 모서리를 여분의 바탕지로 붙여 연결한다. 4 원하는 색상의 색지를 겹면에 붙인다. 5 색지함에 장식할 모양지를 만들어 상자에 붙인다. ▲ 화예문(학생 작품) 사각 합지(하드보드지, 색한지/8×8×4cm)



116 5-3. 다문화와 공예

한지로 보관 용기 만들기

★ 종이 끈으로 만들어 엮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관 용기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요



16쪽 중 16쪽은 길게 잡고 우물 정자(井) 모양으로 네 무리를 나누어 중심을 잡는다. 2 네 가닥씩 씨줄이 위아래로 교차될 수 있도록 늘린다. 마지막 씨줄은 한 줄만 교차한다. 3 두 가닥씩 나누어 위아래로 교차될 수 있도록 늘린다. 마지막 씨줄은 한 줄만 교차한다. 4 방사형으로 균형을 잡아 가며 씨줄을 당기면서 편을 엮는다. 5 크기를 생각하여 밑판을 만든다. 6 씨줄은 각각으로 세우고 옆면의 기울기를 생각하여 엮어 올린다. 7 끝 부분을 열로 엮어 마무리하고 매듭을 지어 완성한다. ※ 비줄: 가로 방향, 낚줄: 세로 방향



생활에 맛을 더하는 한지 공예 117

① 제작 과정을 알아본다.

- 어떤 쓰임을 가진 보관함을 만들 것인지 정한다.
 - 작은 장신구를 담을 통
- 어떤 공예 기법을 활용할 것인지 정한다.
 - 전지 공예 기법 활용

- 형태를 구상한다.
 - 사각 상자 형태
- 재료를 준비한다.
 - 합지, 목공용 풀, 색한지, 칼, 가위, 풀

- 구상한 형태로 제작한다.
- 자리를 정리하고 용구를 정돈한다.

② 판을 이용한 용기 만드는 방법을 안다.

▶ **난독 활동** 사각 상자를 만드는 방법을 안다.

- 원하는 모양의 평면도를 하드보드지에 그리고 모양대로 자른다.
- 하얀색 바탕지를 준비하여 하드보드지보다 여백 0.5cm를 더 준다.
- 바탕지 위에 하드보드지를 붙인다.
- 하드보드지의 모서리 부분에 가위집을 내어 깔끔하게 붙인다.
- 하드보드지에 바탕지를 붙인 후 모서리를 여분의 바탕지로 붙여 연결한다.
- 원하는 색상의 색지를 겹면에 붙인다.



하드보드지 자르기 바탕지 자르기 하드보드지에 풀칠하기



바탕지 붙이기 모서리 연결하기 색지 붙이기

- 색지함에 장식할 모양지를 만들어 문양을 상자에 붙인다.



한지를 여러 장 겹쳐 무늬 오리기 옆면 무늬 붙이기 (패턴을 활용한다.) 문양 만들어 붙이고 완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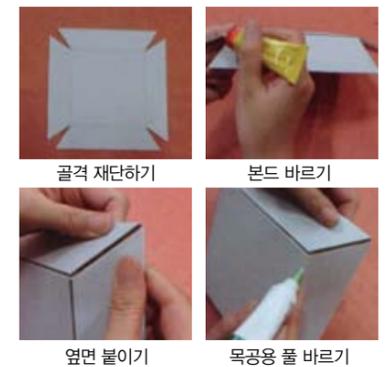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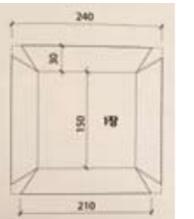
- 한지 공예에서 문양은 형태, 색과 더불어 3대 미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 우리나라 전통 문양은 기하학 문양, 동식물 문양, 종교나 신앙을 상징하는 문양, 자연 문양, 길상 문양 등이 있다.



기하학 문양 동물 문양 식물 문양 종교나 신앙 문양

▶ **난독 활동** 사각 접시를 만드는 방법을 안다.

- 사각 접시 도면을 그린다.
 - 합지는 3mm 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모는 마분지를 여러 장 재단하여 붙여서 사용해도 된다.
 - 표시된 단위는 mm이다.
 - 골격을 1장으로 재단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나 밑면과 옆면을 따로 나누어 재단할 수도 있다.
- 골격을 조립한다.



골격 재단하기 본드 바르기 옆면 붙이기 목공용 풀 바르기

- 초배지를 바른다.
 - 마주 보는 곳을 찢어서 옆선에 맞도록 깨끗하게 마무리한다.



안 옆면 붙이기 밖 옆면 붙이기 안 바닥 붙이기 밖 바닥 붙이기



표현 한지로 보관 용기 만들기

교과서 116~117쪽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판으로 골격을 만들거나 종이 끈으로 엮어 보관 용기를 만들어 본다.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판으로 골격을 만들거나 종이 끈으로 엮어 보관 용기를 만들 수 있는가?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찰법, 실기 평가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전지 공예와 지승 공예 기법의 사진 및 동영상 자료, 8절 눈금 마분지, 3mm 합지, 한지(순지), 색한지, 접착제(본드 혹은 목공용 풀), 풀 등 학생: 한지 공예품 관련 수집 자료, 가위, 풀, 쇠자, 커팅용 칼, 직각자, 풀칠용 붓, 고무 판, 각도기, 풀칠 판(신문지)



지도상의 유의점

- 합지는 3mm 정도의 합지를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눈금 마분지를 2~3장 겹쳐 붙여 제작할 수도 있다.
- 합지를 칼로 자를 경우, 고무 판을 바닥에 깔고 칼질을

여러 번 반복하여 자르도록 하고 안전하게 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전개도를 그릴 때 수학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교수·학습 과정

▶ 들어가기

1 보관함의 용도에 알맞은 한지 공예 기법 살펴보기

- T: 만들고 싶은 보관함에 어떤 기법을 적용하고 싶은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까요?
- S: 저는 색상처럼 두꺼운 종이로 뼈대를 만들고 한지의 다양한 색과 문양으로 꾸며서 보관 용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한지의 화려한 색을 잘 활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 S: 저는 지승 아래까지 한지를 꼬아 학용품 보관 용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끈을 꼬아서 엮어 나가는 방법이 재미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 전개하기

1 판을 이용한 보관 용기 만들기

- 색지를 바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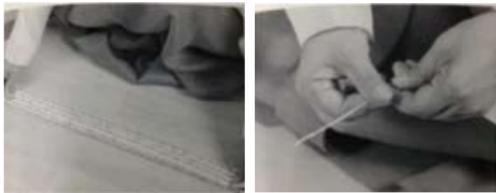


한지 조각 붙이기 문양 배접하여 붙이기 안 옆면과 뒷 옆면, 바닥은 초배지와 같이 붙여 완성한다.

2 종이 끈을 이용한 보관 용기 만들기

㉠ 제작 과정을 알아본다.

- 종이 끈을 준비한다.
 - 한지로 끈을 만들거나 종이 끈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종이를 5cm가량 자른다. 엄지와 검지로 돌려 가며 끈을 만든다.

- 16줄 중 1줄은 길게 잡고 우물 정자(井) 모양으로 네 무리를 나누어 중심을 잡는다.



- 네 가닥씩 씨줄이 위아래로 교차될 수 있도록 날줄인 긴 줄을 한 바퀴 돌린다.



- 두 가닥씩 나누어 위아래로 교차될 수 있도록 돌린다. 마지막 씨줄은 한 줄만 교차한다.



- 방사형으로 균형을 잡아 가며 씨줄을 당기면서 판을 엮는다.



- 크기를 생각하며 밀판을 만든다.

- 씨줄은 각각으로 세우고 옆면의 기울기를 생각하며 엮어 올린다.



- 끝 부분을 옆으로 엮어 마무리한다.



- 마음에 드는 방법을 골라 매듭을 지어 완성한다.



김영민(학생 작품) 장식용 화분틀 (지름: 10cm) 전은진(학생 작품) 연필꽂이 (지름: 15cm) 손민(학생 작품) 사탕 바구니 (지름: 15cm)

3 보관 용기 제작하기

- ㉠ 보관함의 용도를 정한다.
 - 연필꽂이, 붓꽂이, 장신구 보관함 등
- ㉡ 알맞은 공예 기법을 정한다.
 - 전시 공예와 지승 공예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공예의 방법을 선택한다.
- ㉢ 형태를 구상한다.
 - 보관 용기의 쓰임을 생각하며 밑그림을 그린다.
- ㉣ 재료를 준비한다.
- ㉤ 제작한다.

정리하기

- ㉠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 판을 이용하여 보관 용기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 종이 끈을 엮어 보관 용기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 ㉡ 주변을 정리한다.
 - 남은 합지와 한지, 종이 끈은 잘 정리하여 보관하고 남은 종이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보도록 안내한다.
 -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 작품을 소중히 보관하여 서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한지 공예품 감상하기

★ 서로의 작품을 살펴보고 표현 방법의 특징, 쓰임 및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감상 관점

- 1 우리가 만든 한지 공예 작품은 용도에 맞게 만들어졌나요?
- 2 한지의 활용과 제작 방법에서 잘된 점은 무엇인가요?
- 3 공예품에 나타난 형과 색, 문양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세요.



▶ 김민홍(학생 작품) CD 보관함(하드보드지, 색한지/12×4×8cm)

▶ 윤규내(학생 작품) 보석함(하드보드지, 색한지/8×8×4cm)

▶ 구수현(학생 작품) 붓꽂이(하드보드지, 색한지/4×4×12cm)

▶ 한성훈(학생 작품) 장식용 화병(종이 끈/4×4×8cm)



스스로 평가하기

- **재현** 한지 공예품은 한지의 어떤 특성을 이용한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 **표현** 한지로 용기를 만드는 방법과 만들 때 주의할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 **감상** 서로의 작품에서 잘된 점을 찾아 이야기해 보세요.

118 5-3. 다문화와 공예



감상 한지 공예품 감상하기

교과서 118쪽

수업 목표	• 서로의 작품을 살펴보고 표현 방법의 특징과 쓰임,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평가 기준	• 서로의 작품을 살펴보고 표현 방법의 특징과 쓰임,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가?
평가 방법	• 관찰법
준비물	• 교사: 한지 공예 참고 자료 • 학생: 제작한 보관 용기 작품



지도상의 유의점

- 한지의 특성과 한지 공예의 방법을 잘 활용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한지 공예의 우수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마음을 갖도록 지도한다.
- 전통 공예품의 형, 색, 문양을 중심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수·학습 과정

들어가기

1 전시 상기하기

- T: 지난 시간 한지를 이용한 보관 용기 만들기를 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요?
- S: 합지를 자르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 S: 우리나라 전통 문양이 매우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 S: 오방색에서 전통 공예품의 아름다움과 특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S: 종이 끈으로 엮어 보관 용기를 만들 때 규칙적으로 엮어 나가는 것이 재미있어요.
- T: 이번 시간은 서로의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품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하기

1 감상 관점 이야기하기

- T: 한지 공예품을 감상할 때 관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 S: 용도에 알맞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봅니다.
- S: 한지의 특성을 잘 활용하였는지 살펴봅니다.
- S: 제작 방법에서 좋은 점을 살펴봅니다.
- S: 공예품에 나타난 형과 색, 문양의 특징에 대해 살펴봅니다.

2 한지 공예품이 표현 특징 감상하기

- T: 우리가 만든 한지 공예 작품은 용도에 맞게 만들어졌나요?
- S: 'CD 보관함'은 CD를 담을 수 있는 크기로 알맞게 만들었습니다.
- S: '보석함'은 보석을 넣을 수 있도록 여닫는 형태의 서랍식함을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 S: '붓꽂이'는 붓을 꽂기 편리하도록 높이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 S: '장식용 화병'은 꽃과 잘 어울리도록 유연한 곡선으로 만들었습니다.
- T: 한지의 활용과 제작 방법에서 잘된 점은 무엇인가요?
- S: '보석함'은 안의 상자를 빼기 쉽도록 바깥 상자의 위쪽에 홈을 만들었습니다.
- S: '붓꽂이'는 골격을 조립한 경계 부분과 가장자리에 색지를 꼼꼼하게 붙여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 S: '장식용 화병'은 끈을 엮으면서 당기는 힘을 조절하여 굴곡이 있는 아름다운 병을 만들었습니다.
- T: 공예품에 나타난 형과 색, 문양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 S: 판을 이용한 보관 용기는 사각, 팔각 등 각진 형태를

만들기 쉬웠고 끈으로 엮어 만든 보관 용기는 둥근 형태를 만들기 편리하였습니다.

- S: 'CD 보관함'은 기하학 문양을 활용하여 앞면을 꾸민 것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 S: '장식용 화병'과 '보석함'은 한지의 다양하고 은은한 색 덕분에 보관 용기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 S: '붓꽃이'는 한지를 손으로 찢어 붙여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정리하기

- ㉠ 서로의 작품에서 잘된 점을 이야기한다.
 - 용도와 표현 방법의 잘된 점을 이야기한다.
 - 색과 문양의 아름다운 점을 이야기한다.
- ㉡ 한지 공예의 활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 ㉢ '스스로 평가하기'를 중심으로 단원 내용을 정리한다.

스스로 평가하기

- 한지 공예로 만든 용기의 종류와 한지의 특성을 이야기해 봅시다.
 - 종이 끈을 엮어서 만든 지승 다래끼, 종이를 여러 겹 붙여서 만든 종이 합, 색상자가 있다.
 - 한지는 질기고 수명이 오래가며 가볍고 비단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잘 찢어지지 않는다.
 - 자연 그대로의 빛깔뿐만 아니라 염색에 의한 다양한 색상의 조화가 아름답다.
 - 친환경적이고 항균성과 보온성이 뛰어나며 가볍고 방습,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 한지로 용기를 만드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 골격을 이용해 용기 만드는 방법(전지 공예):
 - ① 도면 그리기 ② 골격 조립하기 ③ 초배지 붙이기 ④ 색지 붙이기 ⑤ 문양 붙이기 ⑥ 완성하기
 - 종이 끈을 이용해 용기 만드는 방법(지승 공예):
 - ① 16 가닥으로 밑판 만들기 ② 옆면 엮기 ③ 마무리하기 ④ 완성하기
 - 한지로 용기를 만들기 위해 판을 자를 때는 힘을 주어 자르기보다 같은 곳에 여러 번 칼을 그어 안전하게 자를 수 있도록 한다.
- 서로의 작품에서 잘된 점을 찾아 이야기해 보세요.
 - 종이 끈을 촘촘히 엮어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단단하다.
 - 한지를 여러 겹 꼼꼼히 발라 튼튼하며, 다양한 무늬의 조합이 아름답다.

참고 자료

한지 공예의 다양한 분야

전지 공예

한지를 여러 번 배접한 두꺼운 종이 골격이나 나무 골격에 한지를 바른 후, 오색으로 물들인 한지를 입혀서 완성하거나 아름다운 문양을 붙여서 마무리하는 방법의 공예이다.



반질고리
(한지/높이: 40×40×19cm/조선 후기)

예) 색실 상자, 반질고리, 갓집 등

지승 공예

종이를 일정한 크기로 좁고 길게 잘라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비벼 꼬아서 이어가며 끈을 만들어 직조하듯이 엮어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드는 방법의 공예이다.



반질고리
(한지/높이: 20cm/조선 후기)

예) 방석, 광주리, 망태기, 허리띠 등

지호 공예

종이를 물에 풀어 녹인 다음 밀푼을 섞어 절구에 곱게 찼어서 점토처럼 이겨 붙여서 만드는 기법의 공예이다.

예) 합, 함지, 표주박, 종이 탈 등

좁치 공예

닥나무 섬유로 된 몇 겹의 종이를 물과 함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착시켜 손으로 두들기고 주물러서 강하게 만드는 기법의 공예이다.



반질고리
(한지/높이: 12.5cm/조선 후기)

예) 지갑, 주머니, 한복, 무복, 불가 의례 장식용 등

참고 문헌

정계화 저, 생활 속의 한지 공예, 도서출판 고현갤러리, 2013.
백승정 외 4인 공저,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한지 공예,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8.



생활에 맛을 더하는 한지 공예



한지 공예 살펴보기

교과서 115쪽

한지 공예품의 쓰임과 제작 방법 알기

_____학년 _____반 이름 _____

-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 색상자:

· 지승 다래끼:

- 어떤 재료와 방법으로 만들었을까요?

· 색상자:

· 지승 다래끼:

- 한지는 어떤 특성이 있나요?



준비물

교사

한지 공예 기법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참고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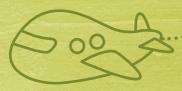
학생

활동지, 필기도구



평가 방법

지필 평가



신발로 보는 세계의 문화



우리나라의 미투리: 삼이나 모시 또는 노끈(실, 삼 껍질, 형짚, 종이 따위로 가늘게 꼰 줄) 등으로 삼은 신을 '미투리'라고 하는데, 이 유물은 종이 및 나무껍질로 만든 것이다. 미투리는 '삼신'이라고도 하며, 마혜(麻鞋), 망혜(芒鞋)라고도 한다. 신목이 낮은 신발을 총칭하는 '리(履)'의 일종으로 개방형이며, 짚신보다 고급품이다. 일반적으로 서민층의 남녀가 사용하였는데, 가죽과 비단으로 만든 신들이 출현함에 따라 점차 수요가 줄어들었다.



캐나다 원주민의 모카신: 캐나다 온타리오의 휴런(huron) 족은 겨울이 되면 나무줄기나 동물 가죽으로 만든 튼튼한 모카신을 신었다. 모카신은 동물 가죽을 방망이로 두드려 부드럽게 만든 다음 여러 종류와 형태로 만드는데, 사슴, 들소, 세우 가죽이 들어간 비율도 다르고 장식된 무늬도 각기 다르다. 꽃잎이 달린 모카신에서 유리구슬이나 고슴도치 가시가 달린 모카신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파키스탄의 여성 신발 '쿠사': 파키스탄은 인도와 고대부터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1947년 8월 영국으로부터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하기 이전까지 인도의 역사와 생활 모습이 흡사한 점이 많다. 전통 신발의 경우에도 파키스탄 여성들이 신는 이 '쿠사'는 인도 신발 중 앞이 뾰족한 주띠(Jutti)와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파키스탄 신발은 인도 신발보다 가죽 자체의 소재를 더 자연스럽게 나타내며, 전통 문양을 살려 금사와 은사로 수를 놓아 화려하고 장식적이다.



영국의 구두: 궁정의 장식적이고 비실용적인 양식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구두이다. 우아하게 신는 신발로 비포장도로에서 진흙을 밟으며 걷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신발이다. 실크와 은사로 치장한, 발끝이 뾰족하고 굽이 높은 이 구두는 원래 앞부분에서 조이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귀금속의 버클 장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세기 유럽 궁정 귀족들의 의복과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생각 쑥쑥
예시 답안

- Q** 여러 나라의 신발을 보고 느낀 문화적 특색을 이야기해봅시다.
- A** 종이나 나무껍질 등으로 꼬아서 만들고 앞 코를 막지 않은 개방형 신발 미투리나 사냥과 추위 예방을 위해 만든 모카신 등 신발에서도 생활과 문화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 Q** 지역마다 신발의 재료와 형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 A** 지역마다 계절이나 풍토, 기후 등 생활환경이 다르므로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쓰임에 맞게 만들어 신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